현대불교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제 1292 호

간절한 서원 목탑은 빛난다

희망의 등을 밝힌다.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등불이 있어야 하는 오늘. 부처님 오신 뜻 새기는 날에 이 땅의 모두를 위해 등불을 밝힌다. 힘겨운 시절에 세웠던 목탑을 오늘로 불러 다시 세우니 그 불사는 위대하고 눈물겹다. 그 옛날, 사라짐이 남긴 설법이 환한 등불로 일어나 다시 힘겨운 오늘을 밝힌다. 그 시절의 희망과 염원을 담았던 목탑 아래서 우리 다시 희망과 염원을 담아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오늘. 간절한 서원들로 목탑은 빛난다. 목탑 등불 아래 모여 밝은 내일을 맞고,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30일(음 4월 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서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을 열고 '국난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 을 점등했다. 희망의 등은 황룡사 9층목탑등으로 문화재청의 황룡사 복원 사업의 복원도를 기초로 제작됐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2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전국 봉축 주요일정

불교계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봉축일정 축소 및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난극복을 주제로 한 행사가 작게 나마 준비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를 중심으로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한 연등공방과 어린이놀이마당 등이 열릴 예정이며, 부산지역에서는 릴레이 호국기도가 펼쳐진다. 코로나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대구지역에서 모든 일정 취소를 결정했으며, 경북지역에서는 코로나극복 300배 등이 눈길을 끈다. 〈편집자 주〉

연등회

5월 23일	어울림마당	동국대 운동장
5월 23일	연등행렬	종로 일대
5월 30일	봉축법요식	전국사찰
5월 30일까지	전통등전시회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서울 · 경기

5월 10일	가족연등공방	조계사
5월 14일	등만들기 마당	조계사
5월 16일	천수다라니대정진	봉은사
5월 17일	어린이불자모험마당	조계사
5월 23~25일	봉축자비나눔바자회	조계사
5월 24일	봉축관불의식	봉은사
5월 27일	봉축야경템플스테이	조계사
5월 30일	봉축점등식	봉은사

부산 · 경남

5월 30일까지	삼광사연등문화제	삼광사
5월 16일	봉축점등식	삼광사
5월 27일까지	호국릴레이법회	부산사찰
5월 27일	호국기원기도	송상현광장 특설무대
5월 29일	범종교평화기도	부산사찰

대구 · 경북

5월 9일	안동 봉축점등식	웅부공원
5월 23일	안동연합법요식	웅부공원
5월 23일	의성 코로나극복 300배정진	의성사찰

광주 · 전남

5월 6~27일	전통등전시회	광주천일대
5월 23일	관등법회	5 · 18민주광장

전주 · 전북

5월 23일	전북연등축제	전북도청광장
5월 16일	정읍군부대봉축법회	이순신연대



전국 1만5천 사찰 코로나 극복 · 치유 기원

4월 30일 입재식… 한달 간 기도 정진

원행 스님 입재법어 설해
"코로나, 무명 깨우쳐 줘"
대중들 '약사여래경' 독송
발열체크 등 방역에 최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무 동방만월세계 십이상원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서울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약사여래불' 칭명염불이 울려 퍼졌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대웅전 밖 좌석들은 1m 거리를 두고 배치됐으며, 미리 신청한 신도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법당 안팎을 출입하는 사부대중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됐으며, 발열체크도 이뤄졌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고, 내외빈은 초청하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입재 법어를 통해 코로나19가 인류의 무명(無明)과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을 깨우쳐 준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코로나19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한국불교 전래 이래 1700년 동안 지켜오던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까지 한달 뒤로 미뤄야 할 만큼 시간까지 정지시켰다"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게 했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꽃놀이를 가겠다는 '탐심(貪心)'과 자가격리로 나타나는 '진심(嗔心, 분노)', 의학적 영역과 종교적 신념을 구별하지 않으려 한 '치심(癡心, 어리석음)'을 코로나19가 알게 해줬음을 상기시키며 "이후에도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를 줄이는 절제된 삶과 소욕지족의 삶으로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금 정국보다 더 큰 불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4월 3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약사여래불'을 정근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법회 동참 대중들.

이어 스님은 "1만 명의 생각이 모이면 하늘도 바꿀 수 있다(萬人天作)"고 강조하며 "1천만 명이 연등을 한 개씩 더한다면 그 공덕으로 인해 코로나라는 괴로움의 세상을 룸비니 꽃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원력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마음으로 하늘 위 하늘 아래까지 연등으로 장엄하자"고 당부했다.

입재 법어 이후 참석 대중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뜻을 기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원만히 극복하길 서원하며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수지 독송했다.

또한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모든 공덕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한달 동안 전국 사찰과 불자들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배경〉 등을 수지 독송하며 기도 정진을 이어간다. 회향일인 5월 30일(음력 윤 4월8일)에는 기도 회향법회와 봉축법요식이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봉축 행사 대폭 축소…비대면 법회는 증가

올해 봉축, 무엇이 달라지나

그간 유례없던 '봉축'이다. 봉축법요식은 한달 뒤인 5월30일(음력 윤4월8일)로 연기됐고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가 입재했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도 대폭 축소됐다. 사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며 법당 출입시에는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수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변화다. 전반적으로 올해 봉축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축주간이 한달 간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안을 찾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법회를 시도하는 사찰도 증가해 눈길을 끈다.

◇유례없는 한달 봉축… 법요식도 두 번

올해 봉축법요식은 한달 뒤인 5월 30일 봉행될 예정이지만, 일선사찰에서는 4월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입재에 겸해 이미 간소하게라도 법요식을 봉행한 곳이 상당수다. 공식적인 법요식 일정은 연기됐더라도 '부처님오신날'을 그냥 넘길 순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불자들 역시 봉축법요식이 5월 30일 봉행됨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4월 30일 미리 사찰을 찾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두 번의 법요식과 한달간 이어질 봉축주간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됐던 일선 사찰에 활기를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봉축주간 주말을 활용해 사찰을 참배하고 봉축분위기를 접하려는 발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했지만, 사찰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만큼 이번 봉축주간 동안 일선사찰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봉축행사 대폭 축소

봉축행사의 백미는 단연 연등회(국가중요무형문화재 122호)다. 봉축위원회가 총괄하는 서울 연등회는 이틀간 40만 명이 운집하는 성대한 축제다. 특히 제등행렬은 밤하늘을 가르는 10만 연등의 물결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상징이며, 전통문화마당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한데 모여 다양한 불교문화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그러나 올해 연등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매년 8차선 도로에서 진행했던 제등행렬은 절반으로 축소됐고 행렬을 가까이 만날 수 있던 거리좌석도 운영하지 않는다. 전통문화마당은 아예 취소됐다. 따라서 올 연등회는 이틀이 아닌 5월23일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다.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봉행되는 연등법회에 앞서 연희단이 신나는 찬불가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어울림마당도 생략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교계 결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불특정 대다수가 운집하는 대규모행사에서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봉축위원회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수가 점등식부터 봉축행사까지 모두 최소인원으로 축소하거나 취소, 소규모 봉축행사로 진행된다.

조계종측은 "봉축과 관련한 모든 행사는 감염예방을 위한 일정간격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방수칙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와 함께 종단 '청정사찰 지침'에 따라 사찰 차원의 방역도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법회 눈길

코로나19 사태로 2개월여 간 사찰의 법회 및 행사가 일체 중단되면서 비대면 포교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찰이 크게 늘었다. 예불과 법문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4월 30일 봉행된 코로나19 극복기도 입재법회 역시 적지 않은 사찰들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공개하거나 영상을 편집해 게재하는 등 신도들이 꼭 사찰에 오지 않아도 법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찰 중 서울 봉은사와 합천 해인사, 한마음선원, 부산 흥법사, 범어사포교원 효심사, 대전 광제사 등은 이날 입재법회 현장을 아예 실시간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만난 색다른 봉축 모습인 셈이다.

자동차 법회를 준비하는 사찰도 있다. 서산 보원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에 종교단체를 위한 특별주파수를 신청했다. 불자들이 사찰 주차장과 공터 등에 자동차를 주차해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법회는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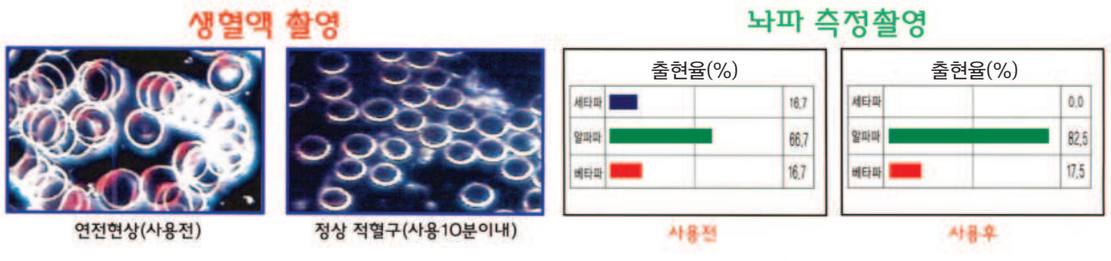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과 다리에 쥐나는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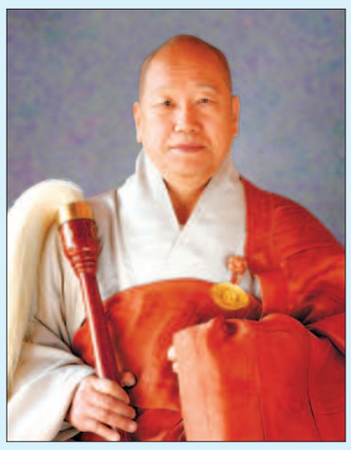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용서 · 화합으로 국난 극복하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4월 28일 교시 내려

코로나19 확산 관련 첫 교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 담아
“희생된 세계인 왕생극락을”
“코로나 소멸로 평화 성취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계가 서로 연기돼 있기에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와 화합으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교시를 4월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해 진제 스님이 교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제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대독한 교시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웃이 본래 부처님이 될 사람들이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의 비원과 지장의 본원이 절실할 때”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인류와 함께 백절불굴의 신념과 사즉생 진리로 지구상에 코로나 질병이 영원히 소멸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제 스님은 올해 연등회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님은 “경자년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윤달 4월 8일(4월 30일~5월 30일) 방방곡곡 모든 사찰에서 코로나 질병소멸과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과 세계인을 위해 왕생극락을 천도한다”면서 “윤 4월 8일은 국민과 불자들이 연등에 불을 밝혀 대광명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코로나 질병이 소멸돼 세계평화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대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진제 스님은 그간 조계종 총무원의 선제적 대응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대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창궐에 대처함에 있어 종단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세계 어느 종교 지도자보다 수승한 지혜와 높은 식견, 지도력으로 세계인류의 생명을 구제했으니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불교는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사찰 템플스테이에서 휴식공간과 공양을 제공하고 안심입명을 얻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부대중은 신명을 다 바쳐 불조의 소명과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 발표에는 교육원장 진우 · 총무부장 금곡 · 기획실장 삼혜 · 재무부장 탄하 · 문화부장 오심 · 사회부장 덕조 · 호법부장 성효 · 사업부장 주혜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배석했다.

태고종, 편백운 스님 등 ‘비대면’ 최종심리

호법원, 4월 28일 종단 최초
항소 여부 · 당사자 진술 확인
논란 사전 차단 방안은 ‘호평’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불신임된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등 징계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상심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화상심리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편백운 스님 등 전 집행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 짓는 최종심리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당사자 소명권을 ‘비대면’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징계 절차를 원칙에 따라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당사자 심리를 통해 징계 이후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태고종 호법원(호법원장 지현)은 4월 28일 편백운 스님 등 14인의 초심원 징계에 대한 최종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호법원장 지현, 호법부원장 관정 스님을 비롯한 호법위원 스님들이 서울 총무원 청사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 징계당사자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등 출석에 갈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호법원에 따르면 태고종 초심원은 지난해 9월19일 편백운 스님 등 9명에 대해 ‘멸빈’을, 5명 스님에 대해 ‘제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대상자들은 종단 절차에 따라 호법원에 편백운 스님을 대표로 공동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호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3명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등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항소여부가 불명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호법원은 이날 ‘화상심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각 징계당사자들의 항소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항소를 제기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최후진술을 받거나 불출석 확인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징계대상자 가운데 ‘항소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5인에 대해서는 초심원 판결 그대로 확정됐으며, 항소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상통화로 소명권을 부여하고 전화에 불응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불출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19 희생자 추모 위해 종교인들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망자를 추모하고 위령재를 봉행하기 위해 6대 교단 지도자들이 모였다. 각 종교 지도자들은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다.

BCRP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는 4월 29일 송상현 광장 부산연등문화제 특설무대에서 ‘코로나 19 종식과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재’를 개최했다.

각 종단 대표들은 전 세계에 있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묵념했으며 이어 추모사를 전하며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다. 각 교단 대표들과 내빈들은 헌화하고 교단에서 진행하는 추도식으로 위로를 더했다.

합동 위령재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정각 스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박동신 공동회장(대한 성공회 부산울산 교구장), 박차귀 공동회장(천도교 전국여성회 본부 회장), 조동성 신부(부산 카톨릭 대학교 상임이사), 김덕수 교무(원불교 서면지구장), 황석민 목사(부산지장경찰청 교회 담임목사)와 하정선 불교TV염불공양모임 회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강남 서래원 개원, 불교문화 전파 발원

4월 29일 봉은사서 개최
사천왕상 점안식도 함께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조계종 관계자들이 서래원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찰과 불교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탄생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9일 봉은사 진여문 앞에서 전문불교문화 체험공간인 서래원을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용품점과 대중공양처 삼소, 빵집과 꽃집 등으로 구성된 서래원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2019년 3월 착공했다.

봉은사는 직장인과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 그동안 사찰문화를 전하는데 노력해왔다. 서래원은 봉은사에서 대중들이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서래원에서는 염주와 불서 등 불자들을 위한 불교용품 뿐만 아니라 꽃과 사찰국수, 빵 등을 판매한다. 봉은사의 조포사 전통에 따른 친환경 두부 등도 홍보차원에서 판매된다.

이날 개원식에 참여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은사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현재 수도권 남부의 불자들의 중심 귀의처”라며 “서래원은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봉은사에는 그동안 불교를 지키기 위해 위법망구하신 허응당 보우 스님을 비롯해 봉은사 철폐를 목숨걸고 막은 백곡 처능 스님 등이 있다. 봉은사가 현재 백곡 처능 스님의 부도탑과 비 건립도 발원했기에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함께 점안한 사천왕상을 비롯해 봉은사는 물론 불교 외호에도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며 “불사에 참여해주신 봉은사 대중들과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봉은사는 이날 서래원 개원에 앞서 사천왕상 점안식도 개최했다. 봉은사의 사천왕상 점안식은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60호인 기존 사천왕상이 보호각 부식 등의 문제로 대웅전으로 옮겨진 후 새 사천왕상을 조성한데 따른 것이다.

봉은사 사천왕상은 한봉석 불국조각원 대표가 조성했고, 진여문 바깥쪽으로 강화유리 보호각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천왕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왕상 복장에는 봉은사 판전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목판인경본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조한 백곡 처능 스님에 관한 책 등이 함께 봉안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학원 · 조계종, ‘분한신고’ 두고 갈등

선학원, “가등록 압박수단” 주장
조계종, “재적승 기본절차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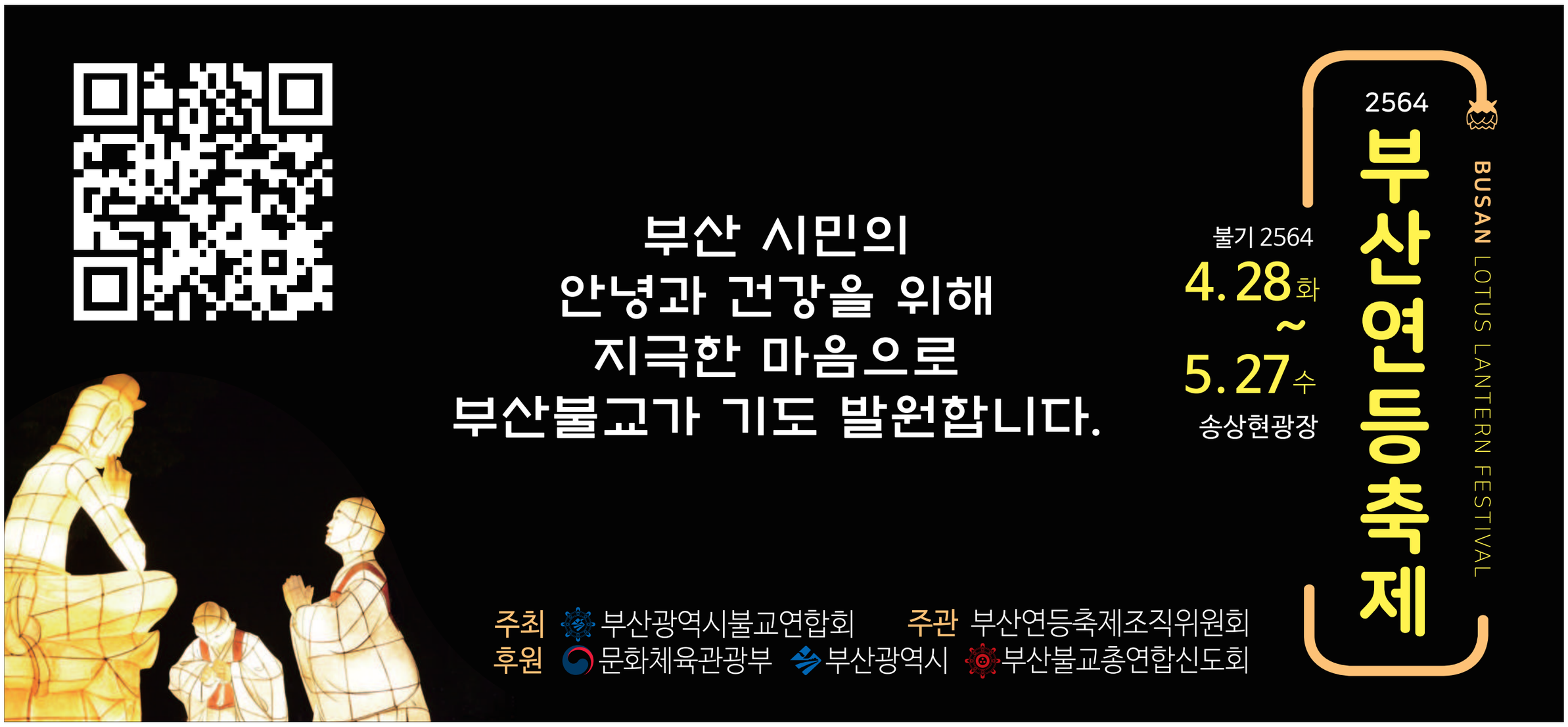
현재 진행 중인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와 관련, (재)선학원과 조계종 간 극명한 입장차에 선학원 소속 사찰 도제 스님들의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계종 승려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모든 재적승이 조계종 승적을 유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 절차임에도, (재)선학원이 각 분원에 공문을 발송해 ‘조계종이 가등록(이중등록)을 요구하는 수단’이라며 분한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안내 사항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3월11일 전국 분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법진 이사장 명의의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 및 이중등록’에 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학원은 해당 공문을 통해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과 관련 “재단 소속 스님들이 승려분한신고를 하려고 하면 유언장 작성과 분원(사찰) 가등록을 조계종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며 “선학원 기본재산을 조계종에 가등록(이중등록)할 경우 차후 조계종의 분담금 납부요구와 임명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금곡)’는 4월 13일 안내공문을 재차 발송해 사실을 바로잡고 “정기분한신고는 분담금 납부요구 및 임명권, 재산권에 관한 권리행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신고 기간이 촉박한 상황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분원 소속 스님 및 선학원 도제 스님 사이에서는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심각한 문제는 스님들이 선학원 공문을 보고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승적이 말소돼 조계종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계종 승적을 상실할 경우 교육, 수행, 승려복지를 비롯한 종도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조계종과 선학원 간의 묵은 갈등에 스님들의 고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학원은 해당공문에서 “재단이 분원 소속 스님들에게 선학원 승적과 승려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재단 소속 많은 스님들이 재단 승적과 승려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게재하는 등 사실상 재단법인 선학원의 승적 발급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지희 기자



불교 라디오 효시… 전파포교 이끌다

개국 30주년 BBS불교방송 걸어온 길

1990년 5월 1일 첫 방송 시작
'방송포교'란 신조어 만들어내
최초 이웃돕기 프로그램 제작
스타 발굴… 불교 대중화 견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불교방송의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M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입니다."

1990년 5월 1일, BBS불교방송(Buddhist Broadcasting System, 이하 BBS)이 첫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순간이다. BBS의 개국은 한국불교 역사를 새로 쓴 획기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의 종교방송은 1954년 개국한 기독교방송(CBS)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상파 불교방송 개국은 2000만 불자의 염원이었다. 여기에 불교방송국 건립을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던 故 대원 장경호 거사와 그 유지를 이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원력이 모여 BBS는 개국하게 됐다. BBS의 개국으로 한국은 세계 유일의 지상파 불교방송국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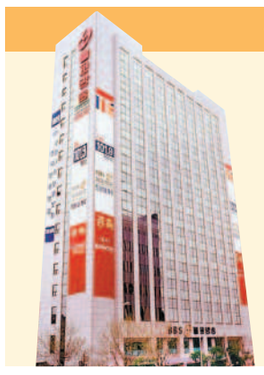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BBS는 중견방송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5년 부산, 광주를 시작으로 1996년에는 대구, 1997년 청주, 2002년 춘천, 2008년 울산, 2018년 제주 지방국을 개국해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했다. 2008년에는 미디어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BBS는 라디오 매체로서의 위상을 탈피해 시사주간지 '판판뉴스'를 창간하기도 했으며 이후 인터넷 뉴스를 전송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는 BBS TV를 개국해 BBS는 라디오 · TV · 인쇄 ·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불교 종합미디어로 성장했다.

BBS 개국의 의미는 '방송포교'라는 새로운 포교 개념과 장르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전체 방송의 80% 이상은 경전공부, 스님의 설법, 고승의 이야기를 엮은 드라마, 불교문화와 역사, 명상음악, 참선, 마음공부, 사찰순례, 불교뉴스 등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포교 프로그램들로 만들고 있다. 라디오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1일 22시간 방송되며, TV는 전국 2천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방송된다.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자비행에도 앞장섰다. 1991년부터 방송된 '거룩한 만남'은 지상파 방송 사상 최장수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30년 가까이 방송되며 120억 원 가량을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다.


4월 28일 열린 BBS불교방송 기념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축하 떡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석 스님,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이사장 종하 스님, 이선재 사장, 배금자 변호사.

숫자로 보는 BBS불교방송 30년



30년	불교방송 역사
19개	BBS라디오 주파수
2760만	BBSTV 가청가구수
73000명	만공회원 인원
120억원	'거룩한 만남' 전달액

불교 라디오 방송은 불교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방송을 통해 스님들이 소개되며, 어렵기만 했던 불교를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른바 '스타급 스님'들이 발굴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인 스님이 힐링멘토 정목 스님이다. 스님은 최초 이웃 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초대 진행자로 방송이 자리잡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90년 첫 방송 이래 30살의 어른이 된 BBS는 앞으로 30년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다. 2015년 BBS는 '방송포교후원 10만 공덕주'를 목표로 후원조직인 '만공회'를 출범했다. 현재 7만 3000명이 만공회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며 방송포교 불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종합 미디어 방송사로 자리잡은 BBS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방송 광고시장의 급격한 침체 속에서 재정적 자립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하며 모바일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은 30주년 기념식에서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잠재적 불자들을 불교의 세계로 이끄는 일이 BBS의 본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뉴미디어와 TV, 라디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불교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효학술상 대상에 권오민 경상대 교수

진흥원 발표… 특별상 박경준 교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2020년 제10회 원효학술상' 학술부문 대상 수상자로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을 쓴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학술부문 특별상 수상자로는 저서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를 낸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가 꼽혔다. 권 교수에게는 상금 2천만원이, 박 교수에게는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원효학술상 학생부문 은상에는 동국대(경주캠)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성제스님과 동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조현길 학생, 중앙승가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현서스님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진흥원은 2019년 11월 제10회 원효학술상 공고를 낸 이후 2020년 2월 28일까지 응모된 총 29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자(수상작)를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17세기 佛母 현진 스님 첫 작품 '보물'된다

백양사 아미타좌상 지정예고
가장 이른 시기 조성 작품
남장사 관음선원 관음좌상도

17세기 불교조각 대가인 현진(玄眞) 스님의 첫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조각승 현진 스님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또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 해제를 예고했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 스님이 주도하고 휴일 · 문습이 함께 참여해 조성했다.



조각승 현진 스님은 17세기에 가장 비중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의해 소실된 불상 복원 조성을 주도했다. 그는 1622년 광해군비 유씨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의 불상 11존(尊)을 지휘하는 등 왕실과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불모였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대좌 밑 묵서에 의하면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 등의 명복을 빌고 성불(成佛)을 기원하며 1607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 스님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며 "현진 스님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새 회장에 고영섭 교수

시민강좌 · 불교사 통섭 강좌 추진 예정

한국불교학회 제24대 학회장으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4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2차 임시총회를 열고 고영섭 교수를 신임회장(대표이사 겸직)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고영섭 신임학회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불교 경전의 수사학적 표현의 연구〉로 석사학위를, 〈문아 원측과 그 교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로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다. 논문과 저서 편찬도 활발히 진행해 〈한국사상사〉 〈불교입문〉 등 저서 91권과 〈한국불교사 연구의 방법과 문법〉 등 논문 125편을 펴냈다. 한국불교학회서는 간사부터 시작해 일반이사와 편집위원장 및 법인이사, 학술기획부회장 등을 맡아 학회 사무를 책임졌다. 학계에서는 한국불교사 연구에 앞장서 한국불교사학회장, 한국불교사연구소장,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고 신임학회장은 임기동안 불교학의 전문성을 잃지 않으며, 대중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고 교수는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인문학을 불교학의 이름으로 선두에서 이끌어왔다"며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불교학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깊은 관심과 넓은 참여가 이뤄지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봉축 맞아 불서 1700권 지원

전국 군법당 등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4월 23일 불기 2564(202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서 1700권을 전법현장에 전달했다.

진흥원 불서 지원은 '어린이,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전국 군법당 130여 곳과 전국 초중고 종립학교 불교 동아리 20여 곳 및 전국 대학생 불교 동아리 50곳에 전해졌다. 불서는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모과나무, 운주사에서 발행한 〈죽음을 명상하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진흙에서 핀 연꽃처럼〉 단행본 3종과 〈원효대사〉 〈경허스님〉 등 만화불서 5종 등이다.

한편, 진흥원은 자비나눔을 위한 불서보급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2010년 어린이, 청소년법회 진행 사찰 450여 곳에 3,000여 권의 만화 불서를 2011년 전국 군법당 140여 곳에 1천여 권의 만화 불서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5월 프로그램 안내

www.koreatemplefood.com

	월별강좌			1일체험			
	화(오전) Tue	화(오후) Tue	수(저녁) Wed	금 Fri	토(오전) Sat	토(오후) Sat	일 Sun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0:00~12:00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4:00~16:00	계절이 깃든 사찰음식 19:00~21:00	3소식 사찰음식 10:00~12:00	Let's learn Korean Temple Food 10:30~12:00	봄나물 특강 14:00~17:00	일요사찰음식체험 10:30~12:00
	강사:홍승스님 3회 참가비:11만원	강사:홍승스님 3회 참가비:11만원	강사:유화스님 4회 참가비:15만원	강사:혜범스님 1회 참가비:2만원	Bo Jun Sunim in English | One Time Price 10,000won	강사:유화스님 1회 참가비:4만원	강사:경현스님 1회 참가비:1만원
1회차 (1st)	5/12 부지깽이나물밥 가지간장양념구이 연근들깨구이	5/12 취나물잡채 두부우엉조림 견과류된장찌개	5/6 머위찜 머위장아찌 머위대새송이풋고추볶음	5/8 봄나물비빔국수 미나리들깨찜	5/9 Flower pancake (화전)		5/10 가죽전
2회차 (2nd)	5/19 사찰식비빔밥 상추냉국 머위들깨탕	5/19 가지새싹전 더덕버무리 버섯초회	5/13 방풍나물도토리전 방풍나물배초무침 방풍나물밥	5/15 들깨즙시금치칼국수 단호박깻잎튀김	5/16 Rice wrapped in Spring Herbs (봄나물쌈밥)	5/16 두부강황구이버무리 오이말이밥 쑥설기	5/17 봄나물쌈밥
3회차 (3rd)	5/26 두부김밥 토마토물김치 오이무채소박이	5/26 감자채마요네즈무침 새송이버섯구이 수수감자전	5/20 취나물잡채 취나물두부버무리 쌈바귀사과초무침	5/22 미나리전 야채장아찌	5/23 Perilla soup with butterbur (머위들깨탕)		
4회차 (4th)			5/27 미나리오이김치 냉이두부유부초밥 냉이다시마국	5/29 풋고추장떡 오이옹심이미역국			

• 모든 강좌는 정원 12명(2인 1조)입니다.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는 사찰음식의 원형메뉴 위주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외국인을 위한 맞춤요리도 진행)

▶ 홈페이지 예약 koreatemplefood.com 회원가입 후 로그인시 수강이력 확인가능
▶ 관련 문의 전화 : 02-733-4650 이메일 : info@templestay.com
▶ 예약시 주의사항 1.수업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입금 / 미입금 시 자동취소 2.수업일로부터 3일전까지 전액 환불가능, 이후 환불 불가 3.예약마감 시 전화로 대기접수 가능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425-130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Korean Temple Food Center
운영시간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09:00~18:00
주소 0306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신관2층(안국역 1번출구)
전화 02-733-4650
이메일 info@templestay.com



구하·경봉 스님 유지 이어 '전법 등불로'

정법사, 창건 108주년 기념 4월 30일 토크콘서트 개최

구하 스님 독립운동 터전 초대주지 경봉 스님 이어 민족귀의처 역할 재다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정법사 토크 콘서트 입재식에서 주지 도문 스님이 정법사의 미래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의 창건 정신이 깃든 정법사, 교육 초석이자 민족정신의 도량으로 전법 등불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산의 포교 중심지로 새 역사를 써간 정법사가 108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전법의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4월 30일 만불전에서 '창건 108년 전법의 등불을 켜다' 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교당 창건을 기획한 구하 스님과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의 일대기를 돌아보고 창건 이념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마산 포교의 격동의 역사 중 인재를 양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터로 활동한 정법사의 활약을 돌아보았다.

이날 행사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크 콘서트는 주지 도문 스님과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기획특집부장), 최두헌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진행했다.

최두헌 학예연구실장은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의 당시 활동을 설명하며 '전법' 과 '교육' 등 정법사가 창건 된 시대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다.

최 연구실장은 "구하 스님은 독립 운동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부산 온천에 위치한 요정(料亭)을 다니기도 하셨다" 며 "당시 요정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고 설명했다. 또 "후학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당시 울산에서부터 통도사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힘쓸만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경봉 스님은 정법사 초대 주지로 포교사로 임명받고 활동하셨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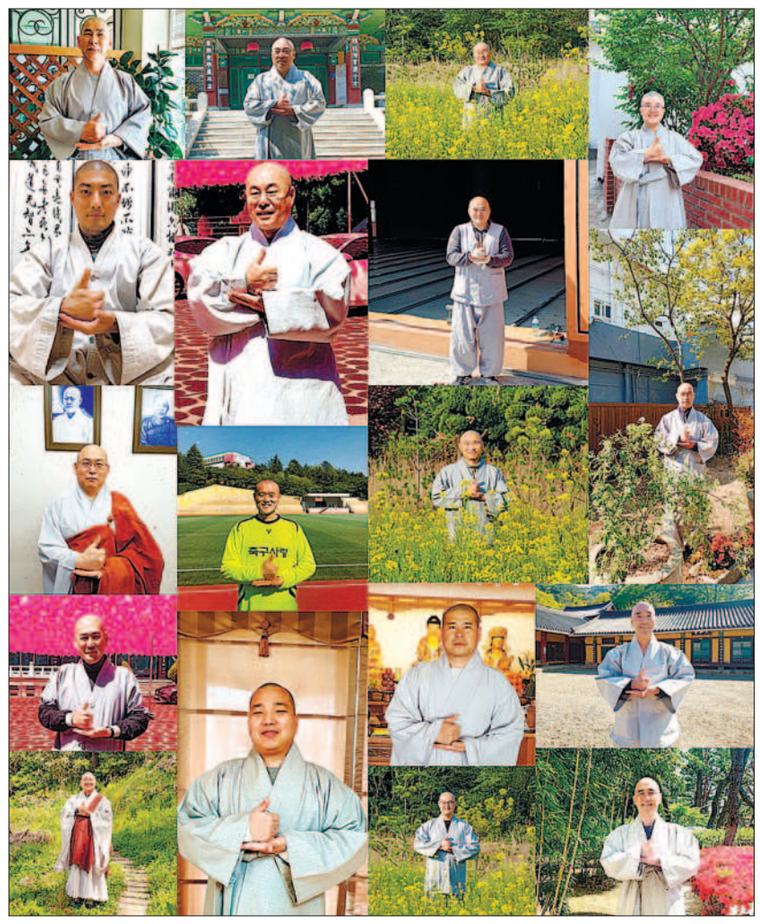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는 포교당 창건 전 당시 마산의 역사적 입지를 설명하고 정법사의 중요활동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 자료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했다.

이 기자는 "마산은 조선시대 영남 해안 상업 중심지로 1899년 개항하고 국제도시이자 신도시로 성장 발달했다" 며 "구하 스님은 민족역량을 모으기 위해 도시 포교당을 세우고자 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창건 한 곳이 정법사이다" 고 말했다. 또 "마산 포교당은 창건 이후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역할을 다했다" 고 평가했다.

정법사는 1911년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다. 1917년 초대 주지로 경봉 스님이 부임했으며 교육 도량이자 민족정신을 지키는 정신적 귀의처로 활동했다. 정법사는 1927년 배달학원을 설립했으며 1940년 대자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사업을 이어갔다. 1998년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을 개설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를 위한 보호막으로 활동했다. 이어 영축불교대학 설립, 대자유치원 신축 개원, 만불전 대불봉안 등 불사 중창으로 발전을 더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앞으로 개산을 기념하며 정법사가 교육도량으로 활동을 보태준 지역 인사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관욕식을 진행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도했다.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 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부산스님들의 따뜻한 '덕분에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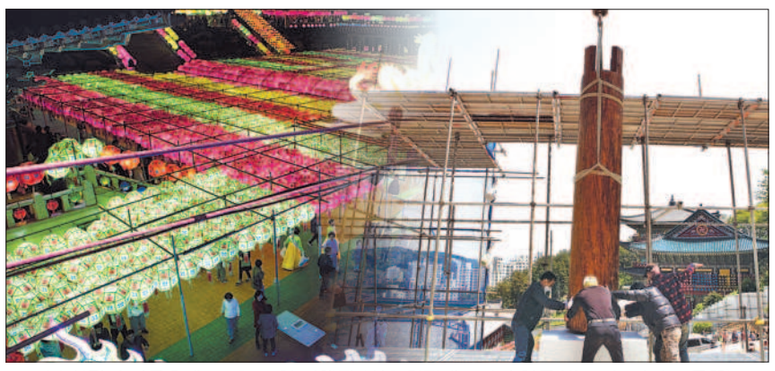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4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 는 먼저 회장 원허 스님을 필두로 시작해 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이 차례로 동참하며 응원 사진을 담아 의료진들을 응원했다.

이날 챌린지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고문 심산 스님, 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 목종 스님, 하림 스님, 종호 스님, 정관 스님, 석산 스님, 정행 스님, 선초 스님, 학산 스님, 혜성 스님, 능후 스님, 선호 스님, 담산 스님, 현도 스님, 현수 스님, 현담 스님, 승민 스님 등 총 18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의 빛, 삼광사서 나툰다

5월 30일까지 연등문화제 조사전 입주식 불사도 진행

7만개 연등으로 경내 장엄 28일 조사전 입주식 개최 문화전법 · 전통전승 박차


2019년 삼광사 연등축제와 4월 28일 진행된 '상월원각대조사전 입주식' 모습(사진 오른쪽).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천년의 빛을 주제로 한 문화와 전통 전승에 나섰다.

삼광사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를 개최한다.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기도 정진의 장으로 개최된다. 이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알리며 세계적인 연등축제로 이름 난 삼광사 연등을 널리 알리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삼광사는 봉축 때면 수만개의 연등으로 장엄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미국 CNN에서도 아름다운 한국의 명소 50곳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연등문화제는 코로나19 극복기원을 담은 행사로 부산진구가 특별 후원했다.

연등문화제는 4월 30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 기도 정진과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삼광사 봉축 점등식은 5월 16일 오후 7시,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 오전 11시에 이어진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문화행사는 연등콘서트 체험, 연등사진전, 예능대회, 먹거리 장터 등이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연등 길트레킹, 지화만들기, 연꽃만들기, 연등만들기, 선다체험, 도자기만들기, 관불, 전통놀이 등 불교문화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삼광사는 4월 28일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상월원각대조사전 입주식' 을 열고 전통 전승에도 박차를 가했다.

조사전 불사의 첫 발을 의미하는 입주(立柱)식에는 주지 세운 스님의 인사말과 김희근 신도회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삼광사 조사전 불사는 천태종 말사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전 불사로 삼광사 개산 50주년을 맞아 상월원각조사의 중흥불사 원력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면적 280㎡(85평)에 높이 18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2019년 9월 기공식이 진행됐다.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의 생에 특별한 의미가 되고 법에 귀의하며 가르침을 이어가는 원력 다짐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인사했다.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은 "조사전 불사의 원력을 모아 코로나 19도 이겨내고 조사전 불사에 모두 마음을 모아 동참하자" 고 당부했다.

삼광사는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을 기원하고 아름다운 연등과 전통문화로 환희심을 선사해 드리겠다" 고 다짐했다. (051)808-711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은해사 4월 25일 중악교 개통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4월 25일 은해사 경내의 중악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은해사는 그동안 팔공산을 출입하는 다리로 극락교가 있었으나, 다리 폭이 협소해 중악교를 개통하게 됐다. 그동안 팔공산 경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점와 지방문화재 20여점의 보존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 화재 발생시 원활히 대처할 수 없었다. 은해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확장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중악교는 RC박스 구조이며 길이는 17.3M, 폭 7.5M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팔공산은 물론 문화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및 청통면 치일리 마을 주민과 은해사 스님들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군산사암聯,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코로나 사태극복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은 4월 29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코로나위기 극복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시는 이날 기탁한 성금을 코로나 확산방지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불교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전통이 있다" 며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20년 2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0년 4월 24일 ~ 5월 31일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사찰음식

초급 26기 수요일 강사 여거스님 / 강의일정 5월 20일 ~ 8월 5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600,000원

금요일 강사 동원스님 / 강의일정 5월 22일 ~ 8월 14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600,000원

중급 21기 목요일 강사 도림스님 / 강의일정 5월 21일 ~ 8월 6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오후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현장학습 포함) / 700,000원

고급 11기 월요일 강사 홍승스님 / 강의일정 5월 18일 ~ 8월 3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현장학습 포함) / 700,000원

승가교육 3기 중급 월요일 강사 홍승스님 / 강의일정 5월 18일 ~ 8월 3일 / 오후 2시 ~ 오후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100,000원

*승가교육은 초급강좌를 이수한 스님만 접수 가능

> 각 수업은 주 1회 12주 과정입니다.
> 고급과정 수료 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 교육내용 사찰음식 이론, 사찰음식 실습, 사찰방문 현장학습 진행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02-2655-2776
www.koreatemplefood.com



현불 논단

불교와 초연결시대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19 집콕 중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 · 명상 콘텐츠 부족 확인
잠재력 있으나 대중화 구심점 無

韓 불교학, 상아탑에 갇혀 안주 중
옥스퍼드대 AI '불교 이러닝' 보급
동경대 불경 전산화로 디지털 주도

보존 가치 문화재 · 학문 범주 탈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 접목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불교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통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손쉽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명상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초연결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휴대폰은 통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혼자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실상 불교의 문화와 명상은 이러한 분야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불교학과 불교문화 및 멀티미디어를 하나로 묶어 인문 · 사회 · 과학 융복합을 이루어내서 새로운 시대의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며 불교를 대중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불교미술과 문화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불교미술과 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명상과 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양자 모두가 현대사회의 혁신적 흐름을 주도하는 멀티미디어를 인문 · 사회 · 과학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불교학과 불교문화가 3D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그리고 입체음향과 결합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거듭난다면 어떨까? 아마도 불교학은 첨단화 되고 불교명상은 산업화되며 불교문화는 보편화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불교학이 인문학의 상아탑에 안주하는 사이에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들은 불교와 불교문화를 다양한 분야에 결합하고 있다. 일본 동경대는 불교경전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y)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 옥스퍼드대 불교학센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교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비블리오테카 폴리글로타(Biblioteca Polyglotta) 연구소는 불교의 고문헌들을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입력하고 있고 미국 하버드대의 켐렙(CAMlab)은 3D 스캔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디지털로 영구보존하는 기술을 불교학과 불교미술에 접목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는 다양한 힐링과 명상을 보조해주는 영상들과 불교학과 불교문화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로 가득하고, 구글맵은 세계문화아틀라스로서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사진들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산사를 집에서 체험하고 불교의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며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효과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효과적으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대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보다 더 큰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자각하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높아진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적 수준에 있는 우리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뛰어난 한국의 불교문화에 접목할 때가 되었다. 이제 불교학은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보존에만 그치는 불교문화라는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고 불교와 불교문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초연결시대 멀티미디어에 기반한 불교 · 문화크리에이터들이 활약하는 한국불교의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법사는 여래의 使者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에 '상불경(常不輕) 보살' 이 나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서 보살의 인행(因行)을 닦을 때 이름이다. 상불경이란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고 공경 예배한다' 는 뜻이다.

오랜 과거세에 상불경 보살이 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예경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보살의 수행을 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부처인 것처럼 감히 나에게 수기(授記) 예언을 한다' 고 비난을 하였다. 그는 많은 모욕을 오랜 세월 동안 받으면서도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아서 '상불경' 이란 별명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전생담' 에 나오는 선혜(善慧)선인이 정광불께 드리는 정성스런 공양 이야기, 인욕(忍辱)선인이 갈리왕에게 사지가 찢기는 고통에서도 잘 참고 견딘 이야기, 설산(雪山)동자의 살신구법(殺身求法) 이야기 등이 석가모니께서 전생에 수행과 공덕을 쌓은 감동적인 보살행의 일화이다.

〈화엄경〉에 "모든 사람이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뜻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중생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상불경보살은 사람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인 부처임을 설파하고, 인간에 대한 예경을 실천한 분이다.

4월 30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집단감염에 대한 종교활동의 연기 권고에 동참하는 취지로 한 달을 연기하여 봉축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중세시대 페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요익(饒益)중생이 불교사상의 핵심이다. 종교와 신, 극락과 천국도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80생애를 흔히 팔상성도(八相成道)로 나누어 설명한다. 물론 부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상징적인 표현도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이다. 설법의 주제와 내용은 석가모니의 생애와 깨달음이 기본틀이다. 법사는 여래의 사자(使者)로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중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설법을 해야 한다.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셔라"라고 설법하였다.

절기, 명절, 세시(歲時)에 맞춰서 설법을 해야 법회가 원만하게 성공한다. 불교의 4대명절에 맞춰서 석가모니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의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이다. 시중(時中)이란 시기(때, 절기, 세시, 명절)와 장소(설법무대, 법당), 대상(청법대중)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것을 뜻한다. 중생의 수준에 맞게 하는 수기(隨機)설법도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계가 하나의 그물코(인타라망)처럼 연결된 연기(緣起)의 세계로서 '고통받는 이웃이 행복해야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중생 치유하는 '봉축 주간' 기대

'부처님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도 입재법회' 가 4월 30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1만5000여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라는 예상 밖의 사태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봉축 주간이다. 올해 봉축 주간은 4월 30일(음력 4월 8일)부터 5월 30일(음력 윤4월 8일)까지 무려 한달간 지속된다.

혹자는 그간 유례없던 올해 봉축에 대해 "부처님이 한달이나 우리 곁에 머무는 셈"이라고 했다.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의 아픔을 더 살뜰히 보듬기 위함이 아닐까. 올해 봉축을 맞이하는 불교계의 행보 역시 이러한 부처님 자비와 맞닿아 있다. 봉축주간 내내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며 코로나로 인한 희생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계도 쉽지 않은 시기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그 대응에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로 호평을 받아온 불교계는 가장 큰 불교명절인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한달 뒤로 연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데 이어 연등회 등 봉축행사까지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에 따라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사찰 재정난에 시달리는 등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에 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사찰의 이익보다 우리사회 아픔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봉축을 택한 것이다. 불교계를 향해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이어지는 이유다.

한달간 이어지는 봉축주간, 불교계가 한발 더 나아가 우리사회 어두운 그늘에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 우리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 고통받는 중생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자비 실현에 나서는 치유의 주간이 되길 바란다.

BBS 불교방송 30주년에 부쳐

BBS불교방송이 5월 1일 개국 30주년을 맞았다. 1990년 5월 1일 불교계 최초 라디오 방송 송출이란 첫발을 디딘 것은 불자들의 염원이 모였기에 가능한 이른바 언론불사였다.

BBS불교방송의 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지상파 불교방송국을 보유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BBS불교방송은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는 등 발전을 거듭했으며, 라디오 방송에서의 틀을 벗어나 인터넷 뉴스 전송과 IPTV 진출 등 불교종합미디어로 발전을 거듭했다.

외형적 확대 뿐만 아니라 거룩한 만남 등 사회 공기로서의 행보도 앞장섰다. 불교계에서는 어렵기만 한 불교를 일반 사회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한 전법 포교방송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현재 BBS불교방송을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일종의 출발선에 서 있다. 모바일과 디지털이란 언론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운 콘텐츠와 매체 변화의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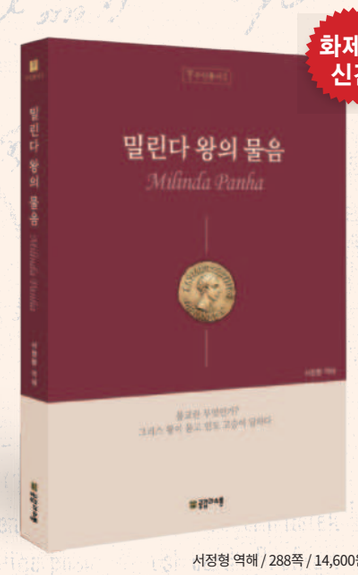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뉴미디어 진출과 이에 맞는 불교콘텐츠 개발을 선언한 BBS불교방송의 30주년 일성은 불교 미디어의 새로운 변화에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불교미디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닌 불법 홍포의 중요한 수단이자 핵심요소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불교의 저변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막중해진다.

BBS불교방송의 30주년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불교 미디어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잠재적인 불자를 발굴할 뿐만 아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전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진다. BBS불교방송의 새로운 미래가 불교 미디어 발전의 시금석으로 자리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Milinda Panha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리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훌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 개 강 : 2020년 5월 5일 (수시모집)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교육기간	강 사	교육내용
3월, 4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 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구궁법,명리학
5월, 6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 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 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7월, 8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9월, 10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1월, 1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월, 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바라작법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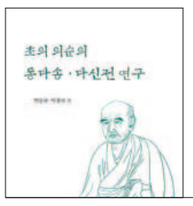
4/29~5/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2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4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5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붓다 아함에서 묘법까지	황명찬	지혜의나무
7	밀린다왕의 물음 (수인총서2)	서정형	공감과소통
8	법구경	이종기/이우경	운주사
9	앉은 자리에서 부처 되기 :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설	추범 해설	소쿠리
10	다시 돌아가 만나기가 어렵다	산티데바/하도겸	시간여행

책세상

새로 쓴 〈동다송〉과 〈다신전〉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연구

박동춘 · 이창숙 저/ 이른아침 펴냄/ 1만8천원

'석경각본' 모본으로 새 번역 · 해설

초의선사 생애 · 저술 · 편찬 배경

원문 · 번역문 초의선사 연표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동다송〉과 〈다신전〉이 출간됐다. 박동춘 · 이창숙의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 연구〉이다.

〈동다송〉과 〈다신전〉은 조선 후기에 초의 선사가 지은 것으로 차의 모든 것을 다뤘다고 할 수 있는 경전이며 차와 선의 일치를 주창한 다삼매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다송〉 판본은 아모레퍼시픽본이 주류였는데, 이 판본은 오탈자가 많아 본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후 몇 종의 필사본 〈동다송〉이 발굴됐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초의의 친필본 〈동다송〉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혼란이었다. 그 후 송광사에서 다송자의 〈백열록〉에 수록된 〈동다송〉이 발굴되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2014년에 초의와 교유했던 구명회 소장 필사본이 경매를 통해 알려지는데, '석경각본'이라고 한다. 석경각본 첫 장에는 "해거도인(홍현주를 뜻함)이 차 만드는 상황을 물으시기에 마침내 동다송 일편을 조심스럽게 지어 답합니다."고 초의 선사가 적고 있다. 이는 석경각본이 적어도 초의가 열람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초의의 친필본 자료와 동일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초의의순의 동다송 · 다신전 연구〉는 이 석경각본을 저본으로 번역됐다.

책의 제1장 '다성 초의'는 초의 선사의 생애, 〈다신전〉의 편찬 배경, 〈동다송〉의 저술 배경 등을 소개한다. 제2장 '다신전과 동다송'은 〈다신전〉 원문 및 번역문과 〈동다송〉 원문 및 번역문을 소개한다. 제3장 '초의 차의 예찬'은 금령 박영보의 〈남다병서〉 저술 배경 그리고 원문 및 번역문, 자하 신위의 〈남다시병서〉 저술 배경, 〈남다시병서〉 원문 및 번역문을 소개한다. 제4장에는 초의 선사의 연표가 실렸다.

초의 선사는 조선 후기에 사라져가는 차문화를 일으켜 세운 다성이자 숭유억불의 시대에 임금으로부터 시호를 받은 선사이다. 어린 나이에 운흥사 벽봉 스님 아래서 출가한 그는 완호 스님과 불연을 맺고 대흥사로 수행처를 옮기면서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다산 정약용을 만나 학연을 맺고, 이후 다산의 아들 정학연을 만나고 추사 김정희로 인연이 이어진다.



저자 박동춘은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초의가 차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수행처를 대흥사로 옮긴 1809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대흥사에는 아암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완호 등 차에 밝은 스님들이 있었고,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선종 사찰의 음다 풍속이 근근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1809년 다산을 흠모한 그가 강진 초당을 찾았을 때, 다산의 차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초의는 1815년 처음으로 한양에서 추사를 만날 때 예물로 차를 준비했다. 학림암의 첫 만남에서 추사는 연경을 방문했을 때 옹방강을 만난 일과 완원에게 대접받은 용봉승설차의 감동적인 차의 풍미를 초의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초의는 꿈에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차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초의차는 제주 유배 시절 추사로부터 '다삼매를 나툰 차'라 인정받았다.

초의가 '초의차'를 완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명대를 풍미한 산차 제다법에 천착하여 제다법의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1837년 홍현주의 부탁으로 쓴 〈동다송〉은 차의 가치와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의미 있는 일이다.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초의를 '전다박사'라고 했다. 이는 그가 차에 밝은 수행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진가를 논증할 다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저자 박동춘은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다도전게'를 받음으로써 조선 후기 초의 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차의 적통인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받았다. 또한 한국 차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해 왔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이사장 · 소장)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 전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 제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초의스님 전상서〉 등이 있다.

저자 이창숙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예문화와 다도학과 초빙교수, 문화살림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茶 본연의 심신수양 '한국수양다도'



차와 수양

최성민 지음/ 책과 나무/ 1만8천원

한국 전통 차문화의 수양론적 다도와 대중적 · 실용적 차생활을 조명한 신간이다. 책 〈차와 수양〉은 차와 다도 본연의 심신수양 원리를 밝히고 차생활의 일상화를 통한 힐링으로 안내한다.

부제 '동양사상 수양론과 한국수양다도'가 붙은 책은 한국차의 향 · 색 · 맛에 담긴 심신수양 원리를 기론(氣論)과 선현들의 체험으로 '한국수양다도'를 제시한다.

차는 당대(唐代) 육우가 〈다경〉을 저술한 무렵부터 '다도(茶道)'라는 뛰어난 정신문화와 함께 해 왔다. 다도는 곧 차의 본질이면서 정체성이자 다른 음료나 물상이 갖지 못한 차별성인 것이다. 도(道)는 동양사상 공유의 수양 언어이므로 다도는 곧 차를 매개로 한 수양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유 · 불 · 도(儒佛道) 사상의 수양 · 수행 · 양생을 관통하는 수양원리가 동양사상 공유의 기론에 있음을 파악하고, 선현들의 문헌에서 실증적인 실천 사례를 찾아 '한국수양다도'를 현대의 마음공부법으로 제시한다.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한국 수양다도의 모색〉을 보완하고 다도 수양과 진정한 차생활 및 차의 본질 이해를 위해 동양 사상 수양론 전반을 다루고 '한국수양다도'의 이해로 이어진다.

제1장 '동양 사상 수양론'은 수양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수양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게 한다. 동양사상 수양론 전반을 유기적 총론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목표인 한국수양다도의 이해를 위한 기초 공부다.

제2장 '동양사상 수양론과 차'에서는 다도가 근본적으로 수양론이라는 것, 그수양의 기제가 동양사상의 기론에서 말하는 '기의 원리'라는 것, 다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차향과 차색과 차맛임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차계와 차학계가 '다도'의 수양론적 의미를 해석해 내지 못하고 형식 위주의 계급편향성 '다례'에 매몰돼 있는 원인을 찾아준다.

제3장 '한국수양다도'는 1장과 2장에서 이어지는 결론이다. 한국수양다도는 세계 유일의 동양사상 기론에 입각한 자연과학적 수양론임을 확인하며 차는 어떤 원리로 우리의 심신을 정화하고 무명에서 깨어나게 해 주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유불도의 수양론과 연계하여 어떻게 한국수양다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선현들의 증언을 좇아 모색한다.

▲저자 최성민(철학박사)은?

서울대(교육학), 성균관대 대학원(한국 철학)을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창간 발의인, 편집국 문화부 기자, 여론매체부장, 논설위원 역임했다. 2003년부터 전남 곡성에 산절로야생다원 조성, 야생수제차 '산절로' 제다와 보급을 하고 있다. 2018년 (사)남도정통제다 · 다도보존연구소 설립, 전통 제다와 수양다도 보존 · 계발 및 '동양사상 수양론과 수양다도' 연구. 2019년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동아시아사상 · 문화학과 생활예절 · 다도 전공 초빙교수로 2019년부터 연중 한국수양다도 보급 프로그램 '힐링 곡성 야생차포레스트'를 기획하여 이론 · 실습 · 체험 위주의 '정통 야생수제차 제다 · 동양 사상 수양론과 한국수양다도' 강좌를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차의 귀향〉, 〈차 만드는 사람들〉, 〈지허스님의 차〉 등 다수가 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달라이라마, "환경, 인류전체 문제"

'지구의날' 50주년 맞아 기념메시지 발표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세계 수자원 문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인류라는 가족"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지구에 대한 보편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노력해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지구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위협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비심과 상호 의존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종, 문화 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달라이라마는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종, 문화 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19 관련 연대 · 협력 강조

"깨끗한 물과 위생 절실한 때"

의료진 · 위생기기 중요성 강조해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며 보편적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솔한 입장을 드러냈다.

달라이라마에 따르면 그는 1959년 티베트에서 망명한 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티베트에선 계곡물을 마시면서 물이 안전한 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 깨끗한 식수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에서다.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는 우리에게 보편적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지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고 지구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라며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되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제되지 않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환자들과 의료관계자들에게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위생은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진의 역할과 위생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의료진과 기기들이 제대로 갖춰진 위생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재 우리의 지구를 유린하는 전염병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 중 하나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세계 보건에 대해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日, 종교 · 종파 초월한 '코로나19 극복 기도회'

토다이지와 고야산이 주축

정오를 기해 각지에서 봉행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뜻 깊은 기도회가 봉행됐다. 4월 2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NHK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봉행된 기도회를 특별 보도했다.



토다이 대불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m씩 떨어졌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세계문화유산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일본 토다이지(東大寺, 동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를 봉행해 왔다. 매일 정오 대불전에서 열리는 이 '정오의 기도회'는 코로나 19의 조기종식과 확진자들의 쾌유, 사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토다이지 주지 사가와 후몬 스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간(정오) 만큼은 그 누구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신사와 교회 등 모든 종교인 분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각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후몬 스님의 간곡한 부탁에 일본 각 종단의 대표자들과 종교인들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합동기도회가 결성됐다.

합동기도회가 봉행된 4월 24일 오후, 토다이지 대불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각 교단 대표자 7인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m 가량 서로 떨어진 채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이날 불교에서 5인, 신도(神道)에서 1인, 가톨릭에서 1인의 대표자들이 기도회 취지를 전했다.

사회를 맡은 토다이지 집사 모리모토 코죠 스님은 "합동기도회라고 하면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 모두 모여 봉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은 밀폐된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이기에 자제하기로 했다"며 "대신 정오에 맞춰 각 종교시설에서 봉행되는 기도회를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 나온 카와무라 히로아키 신부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라며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연을 잇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종교와 종파를 넘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기자회견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9만회 이상의 리트윗, 25만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 역시 "종교를 넘어 대불전 앞에서 나란히 선 종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서는 전사와 같이 보인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모습에 감동했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한편 토다이지 측은 이날 "기도회 동참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불전을 5월 31일까지 폐쇄한다. 대불참배는 참배로에서 요배(遙拜)하는 것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사찰들, 코로나 사태에 운영난

국가적 경기침체 심각 우려

대표적 사찰도 보시 등 급감



태국 파툼 타니의 탈라트 타이 도매시장을 지나는 스님들. 사진출처=불름버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의 사찰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말레이시아 금융 일간지 '디 엣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태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승단은 탁발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불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 매일 아침 재가자를 상징하는 흰 옷에 불교도를 상징하는 주황색 장식을 달고,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보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태국 정부가 봉쇄령을 내린 이후 스님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면서 대표적인 희생자로 지목되고 있다.

태국 국립 불교 사무소 시보완 캐응엔 조사관은 "코로나 사태 이전엔 탁발을 가면 10채의 집 모두에서 음식 공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채 중 3채로 줄어들었다. 특히 태국의 사찰 중 약 5분의 1은 농촌지역에 기반하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 불교 사무소는 생필품과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스님들을 돕기 위한 민간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에서 유명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홈통팁 차판자켓응암 대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고, 가게에 있던 식자재를 요리해 탁발에 나서지 못하는 스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홈통팁 대표는 "스님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매일 영양이 필요한 분들이다. 쌀, 통조림, 야채 등 스님들을 위한 식품들을 최대한 모아서 전달하고 있다. 최근 방문한 사찰의 한 스님은 오래간만에 재대로 된 공양을 받았다며 매우 행복해 하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태국은 국민의 90%이상이 불자인 국가로, 현재 코로나 19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 4월까지 모든 종교의례를 취소한 상황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코로나블루 떨치는 불교의례 연주

에이신 스님의 희망 메시지

밥말리 노래 등 佛具로 연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스님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월 25일 일본의 '아키타 게이자이 신문'은 불구로 팝송을 연주하는 스님의 영상을 특별 보도했다.

아키타(秋田県)현에 소재한 소안지(松庵寺)의 부주지 와타나베 에이신(渡邊英心) 스님은 4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메이카의 싱어송라이터 밥 말리의 노래 '트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노래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노래에서 사용되는 악기가 모두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불구라는 점이다. 주요 음률을 위한 기타를 제외하고 사용되는 악기들은 목탁, 법고, 염주 등으로, 스님은 각각의 악기로 연주하는 영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1분 가량의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에이신 스님은 "학인시절 남미의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음악을 접했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레게 밴드를 표방한 밴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예전부터 밥 말리의 노래를 좋아했다"며 음악적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법회나 제사 등이 취소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웃어보였다.

스님은 "노래가사가 선(禪)의 가르침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통해 콜로나로 어두워진 마음에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님의 영상은 현재 2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넘기며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마음이 편안해 지는 영상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타마저 불구로 대체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고승이 된 '곰'과 산신된 '호랑이'



이상근의
聖寶流轉

⑨ 사찰 벽화 속 곰과 호랑이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 그려진 곰 벽화. '곰절'로 불리는 성주사에만 전해지는 독특한 전설이 담긴 그림이다. 참선을 흉내 냈던 곰은 이를 공덕으로 인간으로 환생했고, 사찰 부목으로 살다가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고승이 됐다.
사진제공=창원 성주사



통도사 해장보각의 까치호랑이 벽화. 벽사의 의미가 있는 '송하맹호도'를 기반으로 한 도상이다. 액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와 복을 가져다주는 까치가 함께 그려 액운과 구복의 의미를 담아냈다.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단군신화'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거개는 곰과 호랑이라고 대답한다. 사실 우문이다. 단군신화이니 주인공은 당연히 단군이다. 물론 가끔 '인간 세상을 탐하여 환인에게 천부인 세 개를 받고 무리 3천과 함께 태백산에 표표히 나타난' 환웅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의 얼개는 환웅이 만들었으니 역시 틀린 대답이 아니다. 하지만 단군신화의 주인공을 곰과 호랑이라고 생각할 만큼 둘의 출연은 강렬하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신스틸러(Scene Stealer, 주연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는 명품 조연)' 급은 된다.

그런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역사 시간에, 그리고 가끔은 국어 시간에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등장은 '토템'이라고 외웠다.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집단, 그리고 새로운 세력인 단군의 결합. 이게 한반도에 최초로 세워진 고조선이라는 국가 출현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에는 이런 토템의 흔적이 뚜렷하다.

산과 바다가 있는 한반도는 뚜렷하기도 하고 흔하기도 하다. 물고기, 거북이, 닭, 고래, 돼지, 그리고 신화 속의 동물인 용까지 동물과 식물을 숭배했던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발견된다. 또 이런 흔적은 '습합'이 주특기인 우리나라 불교 사찰 곳곳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단군 신화에서 동굴에 들어갔던 호랑이는 사찰이나 무속을 신앙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곰은 아주 미미하게만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왜일까?

눈 씻고 찾아본 곰 이야기

한반도에 살았던 곰은 주로 불곰과 반달곰이다. 불곰은 현재도 유라시아 북쪽 지역에 주로 살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도 주로 북쪽 지역에서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살았던 곰은 주로 반달곰이다.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에서 흔히 보는 북극의 하얀색 곰 같은 건 없었다.

북극에 사는 곰은 몸무게만 1000kg이 나가는 지상 최대의 육식 동물이다. 반면 반달곰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180㎝ 그리고 몸무게 100kg 내외다. 몸집이 좀 큰 씨름선수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게다가 반달곰은 다래나무, 산딸기 같은 식물을 주로 먹고 산다. 잡식이라고 하지만 육식은 개미 등 소소한 먹잇감을 즐긴다. 한 대라도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피해야 할 동물이긴 하지만 두려운 동물까지는 아니다. 호랑이와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다.

단군신화 주인공 곰 · 호랑이
해당 동물 숭배한 토템 '흔적'
불교에 습합되며 벽화에 남아

그래서 그런지 한반도에서 자생한 반달곰에 대한 신화나 전설 그리고 그림이나 조각이 거의 없다. 가끔 발견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반달곰보다는 불곰에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공주의 옛 이름은 웅천(熊川)이었다 백제가 도읍을 정하면서 웅진(熊津)이라는 지명으로 바뀐다. 풀어쓰면 곰나루다. 어떤 사내가 굴속에서 처녀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곰이어서 몰래 금강을 헤엄쳐 건넜는데 이에 절망한 처녀가 금강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어 그리 불렀다고 한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온 나라다. 그 기원이 '북쪽'에 있었으니 이런 곰 설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사찰이나 불교문화재에서 곰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그래도 꼽으라는 토함산 마동사지 삼층석탑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곰절'로 불리는 창원 성주사 이야기가 제일 유명하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립한 김대성이 청년 시절 토함산에 곰 사냥을 나갔다. 그날 밤 사냥에서 죽임을 당한 곰이 김대성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죽인 까닭을 묻고 서러워하자 명복을 빌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꿈을 꾸었던 자리에 몽성사, 곰을 잡았던 곳에 장수사를 지었다. 마동사지 삼층석탑 자리가 바로 장수사 터라고 한다.

또 다른 곰 이야기로 유명한 곳은 창원의 성주사다. 성주사는 지금도 '곰절'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원래 성주사는 가락국 수로왕의 처남, 그러니깐 허황옥의 동생(또는 오빠)인 허보옥을 위해 창건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신라 시대 무염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성주사는 전소되고 만다. 그래서 중창을 위한 불사를 시작했는데 원래 있던 절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곰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400m 떨어진 지금의 성주사 자리에 목재를 모두 옮겨놓았다고 한다. 결국 지금의 사찰 건물들은 원래 있던 성주사 터에서 400m 떨어진 자리에 세워진다. 그때가 1604년이다. 이후 절 이름이 웅신사(熊神寺)가 되었고 사람들은 '곰절'로 불렀다.

성주사와 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모산에 살던 곰이 스님들이 하는 참선 수행을 흉내 내다 그것이 공덕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곰은 그 절의 부목이 되었는데 전생의 습 때문인지 배가 고플 때는 자신도 모르게 참선에 열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지 스님이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데 그 순간 깨달음을 얻어 고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사찰에서는 이 기록을 대웅전과 설법전 벽화 등으로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두려운 존재도 영험한 존재도 아니었던 '미련한 곰' 또는 '착한 곰'은 절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물이 아니다.

무서운 호랑이, 비굴한 호랑이

반면에 사찰에 자리 잡은 호랑이는 그 수도 많고 그 표정도 다양하다. 산신령과 함께 산신각에 자리 잡은 호랑이는 근엄하다. 토템이라는 것이 대개는 두려운 존재를 아예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산신각의 호랑이도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은 '산신'인 호랑이에게 다른 임무도 부여했다. 바로 악귀를 쫓는 역할이다. 호랑이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송하맹호도'다. 소나무를 배경으로 호랑이를 그린 것인데 여기서 나무를 뜻하는 수(樹)는 지킨다는 의미의 수(守)와 발음이 같아 액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맹호도에 그 의미를 더 얹은 것이다.

'산신' 호랑이 벽사 의미로 활용
곰 소재 도상, 상대적으로 적어
참선흉내 곰 그린 성주사 '눈길'

그래서 산신각에 그려진 산신도에도 역시 배경은 거개가 소나무로 되어 있다. 소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를 보통 작호도(鵲虎圖)라고 부른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길조다. 액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까치까지 있으니 금상첨화다. 사찰에서도 가끔 까치 호랑이를 발견할 수 있다. 통도사 해장보각 벽화에는 까치와 소나무 그리고 호랑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 있다.

역발상으로 호랑이 그림을 그린 사찰도 많다. 무서운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그려 두려움을 없애고자 한 경우다.

비교적 흔한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담배 먹는 호랑이다'다. 수원 팔달사 용화전 벽면, 화계사 명부전 벽면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개 긴 담뱃대를 호랑이가 물고 있고 토끼 한 마리가 그 담뱃대를 받쳐주고 또 한 마리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장면이다. 이런 벽화들은 170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민화의 유행을 사찰에서 수용하면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때 함께 들어온 동물과 식물 중에는 과거 합격을 기원하며 그린 게,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 화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던 수달, 풍요를 상징하는 모란 등이 있다.

담배 먹는 호랑이보다 더 파격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호랑이도 많다. 해남 대흥사 침계루에는 '벌 받는 호랑이' 그림이 있었다.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 중에 가장 '비굴한' 호랑이가 아닐까 싶다. 다만 지금 그 자리에는 옛 그림은 없고 모사한 그림만 남아 있다. 아쉽게도 모사한 그림은 전혀 익살스럽지 않다. 그냥 웃기기만 하다.

호랑이에 상상의 '날개'를 그려준 것도 있다. 용연사 극락전 외벽의 많은 그림 중에는 호랑이에 박쥐날개를 날아 '비호'라 불리는 그림도 있다.

사찰 벽화나 불단에는 가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나 조각이 많다. 다람쥐나 수달을 보기도 했고 천마나 비호를 보는 일도 있다. 가르쳐줘서 본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본 경우도 많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더 많은 동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 하나씩 '염원'이나 '전설'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사찰에는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은 없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우리 법당 시설은 아직 쓸만해! ....

수 없이 겪는 현장이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스님들과 본사 염불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보며 스님들의 방송수준 한계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 귀에 내 염불이 힘이 들면 듣는 청중(보살)들도 힘이 들어 법당을 떠나고 내 염불 스트레스 누적은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며, 내 귀에 내 염불이 평안하면 신명속에 불자들도 모이지만 무엇보다 스님 자신의 힐링으로 활력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 본사의 염불전문 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낭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는 서울 낙원동에서 김해IC 부근으로 옮긴 후 신흥사, 범어사, 남해의 토굴까지 사찰 형편 따라, 규모 따라 입소문을 타고 일천여 시설을 한 베테랑업체입니다.

▣ 장점 :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으로 고장이 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 카드가능)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발성법 강사 박 공 희
방문시 스님 발성교정 가능

따뜻한 가정, 존중에서 나온다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⑨ 법정 스님 가정관

들과 뫼가 파르라니 물드는 오월이다. 자연의 달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오월에, 사람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을 들어앉히고는 가정의 달이라 한다.

우리에게 가정은 무엇인가? 법정 스님은 "가정이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해와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공동체다. 가정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없으면 우리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곳,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1995)"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어째서 바깥으로만 돌까? 스승은 2005년 길상사 봄 법석에서 말씀한다.

"흔히 집은 있어도 집안은 없다고 한다. 식구끼리 대화도 단절되고 있다.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가정은 삭막해진다. 요즘 이혼하기를 식은 죽 떠먹듯 한다고 들었다. 이혼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여자, 이런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하느냐고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선을 잘못 봐서, 순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걸까? '업'으로 얽힌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업을 고치지 않고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다.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 표현만 다르지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와 보살을 밖에서 만나려 말고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 식사 준비를 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고, 차를 내릴 때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보라.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이를 부처님이 돌아오신다고 반겨 보라. 그러면 썰렁한 가옥이 정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는 집에 있는 이를 부처님으로 여기고, 월급을 내놓으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내 아내,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부른다. 또 외동이도 어버이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 부르며 어버이도 우리 아이라고 한다. 알만한 이들도 곧잘 "틀렸다!"라 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편 또는 나와 아내가 '둘이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깊이 사랑하여' 도두보며 우러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하다 보면 내 것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하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외동이가 내 엄마라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거나 어버이가 내 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란 너와 내가 어깨동무하며 우리를 이뤄 서로 도두보며 우러를 때 비로소 깊어진다.

요즘 들어 단식구 가정이 부쩍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가정은 두 사람이 혼인하면서 꾸민다. 스승은 딱 한 번 선 혼인 주례에서 다음 말씀을 남겼다.

"① 짝을 이루는 두 사람은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서 부부로서 만난 인연을 늘 고맙게 생각하라. ③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 맞아야 한다. ④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말하지 말라. 말이 씨가 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⑤ 공통된 지적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가 끊어진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달에 산문집 두 권과 시집 한 권을 빌리지 않고 사서 읽는다. 산문집은 신랑 신부가 따로 한 권씩 골라서 바꿔 가며 읽고, 시집은 두 사람이 함께 골라 하루 한 차례씩 번갈아 가며 낭송한다. ⑥ 쓰레기를 덜 만들도록 하라. 사는 데 없어선 안 될 것 말고는 아예 집 안에 들여놓지 말라. 이 숙제를 하고 말고는 삶을 마치는 종점에서 내신성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부처님 공양 마음가짐
주변인 대함과 같아야
부부 · 가족 연결 핵심

결혼하고 살아가는 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괴테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으로 이 여성과 또는 이 남성과 일생을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그것 말고는 다 무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좋은 대화 나누는데 시를 함께 읽기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스승은 "좋은 시 한 편이 우리 마음에 낀 녹을 닦아내고 맑은 눈을 열게 한다."라면서 "정치인과 경제인 입에서 시가 외워지고 공무원과 사무직원 수첩에 시 몇 줄이 적히며, 밭 가는 농부와 노동자 작업복 주머니에 시집이 들어있고 주부들 장바구니에도 싱그러운 봄나물과 함께 산뜻한 시집이 들어있다면, 그래서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그걸 펼쳐 들고 낮은 목소리로 읽는다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물기가 돌고 아름답고 정다워질 것(1983)"이라고도 말씀했다.



길상사 법회서 법문하기 전의 법정 스님. 현대불교자료사진

좋은 시 한 편이 우리 마음에 낀
녹을 닦아내고 맑은 눈을 열게 한다

아울러 1995년에는 "부부와 부모 자식 사이에 '~해라, ~하지 말라' '~해 달라, 싫다'와 같은 명령이나 요구와 불만 표시만 있지, 이해와 사랑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서 딱딱하고 무표정한 집만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저마다 하는 일이 달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다.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고 밖에서 돌아오면 저마다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TV 아니면 전화에 매달려 지낸다. 가정에 활기를 되찾게 하려면 어머니나 아버지 쪽이 나서서 대화 나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일러 준다.

"첫째,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말하기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는 일이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 서로 같은 인격체로서 맞아야만 대화를 오롯이 나눌 수 있다. 타이름은 결코 대화가 아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듣는가이다.

둘째,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한집안에서 살아온 식구들이므로 오래전부터 가까이서 지켜보아온 관념 때문에 새로운 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어른들은 세월 무게에 짓눌려 생각이나 몸이 굳어 있지만, 아이들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있으므로 낡은 잣대로 재려고 해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으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지레짐작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더 따질 것도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완고한 부모님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을 되돌아보라. 대화에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 생각을 바꾸려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기려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갖는 것은 우리 마음과 느낌을 서로 나누려는 데 있다. 나눔으로써 이해가 열리고 풍요로워진다. 우리 느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상대방 느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자기 느낌이 받아들여질 때 바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자기 느낌이 거절당할 때는 자신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와 같은 느낌을 거쳐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식구들과 친지들에게서 듣는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한다."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둘째 항목에 나오는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기"에 가슴을 열고 아이들과 뜻을 나누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는다.

자식은 부모를 거쳐 이 세상에 나왔지만
부모 관념으로 옭아매려고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흔히 부부 사이는 데면데면해도 아이는 끔찍이 사랑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고 있을까? 다음은 내가 몸담은 '꼬마평화도서관사람들'이 가려 뽑은 2020년 상반기 평화 책 가운데 하나인 〈어른들이 모르는 아이 세계〉에 나오는 아이들 속내이다.

"손 씻는 세면대 말고 대걸레 빠는 세면대가 불편해서 문제다. 내 키하고 약간 비슷해서 걸레를 올려놓으면 걸레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팔을 뻗어서 위로 들었다가 놨다가 해야 한다. 그래서 팔이 막 아프다."

"학교 공부를 마치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하러 간다. 그리고 3시 30분에서 4시 30분 한 시간 동안 태권도를 한다. 4시 40분에서 5시 10분까지 탁구를 치러 간다. 5시 15분에서 6시 30분까지 영어를 하고 집에서 30분 동안 밥을 먹는다. 약 7시에서 8시까지 공부방을 갔다가 8시에서 10시까지 역사 논술을 하러 간다. …엄마는 내내 공부다. 쪼금 놀려고 하면 공부해라. 뭐 해라 해서 나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마치 이 책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이 스승은 "자식에게 거는 지나친 기대는 도리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도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학교며 전공까지도 부모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우길 때 아이는 독립된 인간으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고 만다. 모든 일에 부모 눈치만 보면서 의존하려는 나약한 무골충이 되고 만다. 자식은 부모를 거쳐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부모의 것이 아니다. 부모 생각이나 관념으로 옭아매려고 해서는 안 된다(1984)."라고 힘주어 말씀한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고, 사람은 본디 깨달아 있기에 아이는 어떤 어른에게 견줘도 뒤지지 않는 해말간 부처님이라고 틈날 때마다 말씀하는 스승은 아이 앞날을 두고 어버이와 아이가 뜻이 갈릴 때는 언제나 아이 손을 들어줬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현대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관상 최고위과정



원장/책임교수 爽廈(석하) 소재학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석박사과정 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교수,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국제미래학회 및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ROTC중앙회 부회장/ 논설위원, 한국풍수문화원 원장
건곤(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포럼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역임
한컴그룹 자문, 서울신문STV그룹 고문, GFCA 원장
동양미래예측 풍수지리 컨설팅그룹 회장
동방대학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성공과 실패시기 규칙적으로 예측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창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0기) 5/6, 5/13(수)개강특강

나갈때와 물러날 때 찾는 지혜, 현대사주학(지동설 명리학)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위과정
과학화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마스터 과정

-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를 찾아라!
-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 과정
- 慧眼(혜안)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명리학, 왕초보도 1년이면 OK!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다.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 근거없는 비법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모든 이론 정확한 성립원리 공부
- 인연법, 궁합법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 정확히 분석
-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 타고난 선천 성격 진로적성 분석법
- 현대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강사 및 진로적성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어렵지 않게 성공시기 분석

★ 마스터까지 무료 반복 수강
※수업 매주 수(水) 18:30 ~ 21:00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7기) 5/11, 5/18(월)개강특강

내 땅 내가 본다. 풍수지리의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비법 찾아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없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기본 개념과 원리 위주 수업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교수진 직강>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지도교수 정경연 박사 | 지도교수 지종학 박사 | 지도교수 세 준 박사 | 지도교수 서백도 박사

- 100세 시대 풍수지리는 제대로만 배우고 활용한다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학문
- 부동산 풍수, 양택 풍수, 음택 풍수, 기(氣)풍수, 생기(生氣) 흐르는 좋은 자리 찾는 법, 살기 수맥 피하고 막는 법 외

풍수도 논리로 푼다. 자연과학 풍수지리
※수업 매주 월(月) 18:30 ~ 21:00

관상 최고위과정 2기
(2기) 5/7, 5/14(목)개강특강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술 관상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강의
행운 부르는 좋은 인상 만들기



책임교수 소재학 박사 | 주임교수 노승우 | 초빙교수 신기원 | 지도교수 이문학 | 지도교수 정민이

실제 얼굴 모습과 영상, 사진자료
활용한 사례 위주 수업
※수업 매주 목(木) 18:30 ~ 21:00

각 과정 2학기 수업
민간자격증 과정 겸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GFCA 최고위 사무국 02-3443-4984 www.gfca.kr
YouTube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선종의 핵심 의제는 '佛性'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⑨ 불성론의 기원 및 선종



그림 · 강병호

인도에서 불성론의 기원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AD 2~3세기에 대승 중기 불교가 흥기할 때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기 대승불교가 발전하기 전 부파불교 및 초기대승불교 교의(敎義)에서 초기불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이것이 불성론 문제를 형성한 초기 단계라고 한다. 즉 불성론 문제는 부파불교와 초기대승불교시기에 형성되어서 중기대승불교에서 발전하고 흥기하였다. 원시불교 시기 즉 불타 재세 시에는 불성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타 재세 시는 불타 역시 제자들과 함께 가사와 발우를 가지고 함께 걸식하고, 함께 잠자고 정진하였다. 또 함께 토론하고 제자들이 묻고 불타는 대답해 주고, 인도해 주는 인도자이자 스승이었다. 때문에 불성에 관해서 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무아에 대해서 말했다. 무아는 무자성의 자아 즉 인연화합에 합성된 자아로서, 독립체가 아닌 상호 의존하는 관계인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멸하는 제법무아를 말한다. 특히 불타는 생존 시 한 분의 스승으로 충분히 존경 받고 있었다. 때문에 따로 불성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록 현재의 부처가 되었지만, 나의 제자들도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반드시 불과를 이루고 성불해서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셨고, 이러한 대목은 경전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굳이 추론해보자면 불성의 기본 모태가 되지 않을까 유추해 본다.

불타가 입멸한 후에 제자들은 불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불타의 육신은 없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제자들 곁에 머문다고 생각했다. 또 불법은 불타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으며,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불타의 정신을 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타의 육신과 상대적인 법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법신은 곧 영구불멸 한다는 개념으로, 불타의 정신을 체현하는 것이다. 즉 법신체는 시공을 초월하고 복덕지혜를 원만히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불타의 본질 혹은 본체론적인 개념으로, 즉 불타의 속성 내지 불타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대승불교 후기 〈화엄경〉에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 즉 "불신은 법계에 항상 충만해서, 널리 일체중생 앞에 나타난다. 연에 따라 나아가며 감응해서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항상 보리 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파불교에 이르러서 법신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발전한다. 법신을 불타 정신의 본체라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법신의 불멸은 곧 불타 수명과 연결지어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곧 불타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어느새 인간 불타는 점점 더 초월성과 신격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부파불교의 모든 부파가 이러한 관점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좌부는 인간불타를 고수했다. 대중부의 의견은 달랐으며, 불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불타관의 분기점이 시작되었고, 다시 상좌부와 대중부는 또 진보와 보수라는 관점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파를 파생시키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현재의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상좌부의 전통 사상 및 교리체계는 고스란히 남방불교로 전해졌고, 북방불교는 상좌부 갈래를 중심으로, 보살도 정신 및 사상을 기본체계로 대승불교로 거듭나면서 북방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현재의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를 가르는 불교의 지형이다.

대중부는 중생에게 불성의 유무(有無)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첫 번째는 어떤 중생의 선근이 끊어졌거나, 혹은 큰 잘못을(오역죄) 지은 사람은 불성 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성의 유무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성이 있는 자들로서 성문, 보살, 연각 등 삼승인(三乘人)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 '佛性' 관련 언급 없어
대신 無自性 自我 '諸法無我' 설법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 될 수 있다"

불성 문제는 사람의 생명본질 혹은 생명의 본체 속성 등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본래 불타는 "제법무아"를 설했다. 즉 '人無我' 설은 생명의 본체를 부정한 것으로, 연기법 상에서 무자성(無自性 · 자성은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을 설했다. 동시에 '法無我'를 설했다. 이러한 관점은 불타 재세 시인 원시불교에서는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었다. 부파불교시대에 이르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파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상좌부는 '심성본정(心性本淨), 객진번뇌(客塵煩惱)'를 없애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결국에 해탈의 주체를 심으로 귀납시켰다. 이 관점은 원시불교의 주장과 일치한다. 더욱이 후래에 선종이 깨달음의 주체로 삼았던 심(心)과도 완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상좌부 계통의 "부불법외도(附佛法外道 · 불법에 붙은 외도)"라고 했던 독자부(犢子部)는 '보특가라(補特伽羅)'를 제시하였다. "보특가라는 즉온이온(即蘊離蘊 · 온에 즉한 것도 온을 여읜 것도 아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특가라는 온처계(蘊處界)를 의지해서 가설로 명자(名字)를 시설했기 때문에, 곧 제행이 잠시 주하는 것으로 또한 찰나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보특가라는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보특가라가 없으면, 중생이 전세로부터 후세에 전환해서 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특가라와 오온의 관계는 즉온이온(即蘊離蘊)이 아니다. 보특가라는 비물질성이지만 물질성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물질과 정신현상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의 '我'가 주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관점은 당시 외도들이 주장했던 '신아(神我)' 설을 불교에 반영한 것이라고도 한다. 때문에 이 논리는 불타가 주장한 '제법무아'와 상반되는 논리이므로 독자부가 설한 '보특가라설'을 '부불법외도(附佛法外道)'라고 하기도 했다. 이외도 상좌부 계통에서 윤회의 주체로서 제시한 개념으로 '유분심(有分心)' 설, "궁생사온(窮生死蘊)"설 등이 있지만, 지면상 줄이겠다. 비록 부파불교시대에 부처님의 관점에 위배되는 사상들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다만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의 관점 및 개념들이 축적되고 정비되면서, 이후 불성론을 형성하는데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많은 사상적 개념을 제공하게 된다.

부파불교 후기에 심성론은 부파불교의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특히 심성(心性)은 염(染)인가 정(淨)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각각의 부파불교의 관점이 달랐다. 이 가운데서 대중부(大衆部) 및 분별설부(分別說部)의 주장은 '심성본정(心性本淨), 객진소염(客塵所染)'의 관점으로, 중생의 심성은 본래 청정하지만, 다만 객진번뇌로 인해서 염오(染汚)되어서 본래 청정하던 心性이 변해서 부정(不淨)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본래 청정한 중생들의 심성이 객진번뇌로 더렵혀졌다는 것이다. 마치 본래 깨끗했던 거울에 때가 묻은 것을 없애면, 본래 깨끗한 상태의 거울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이 관점을 반대한 부파도 있었다. 특히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는 '심성본정설(心性本淨說)'을 극력하게 반대하였는데,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별설부(分別說部)에서 주장하는 '심성본정설(心性本淨說)'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으로 '비요의설(非了義說)'이라고 했다. 이외도 〈성실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심성본정(心性本淨)인데 객진번뇌로 부정(不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심성(心性)은 본정(本淨)한데 객진번뇌로 부정(不淨)한 것이 아닌 것은, 번뇌와 마음은 항상 상응하기 때문에 객상(客相)이 아니다. 또 心生이 이미 멸해서 생기(生起)하지도 않는다. 이런 연고로 心性이 本淨한데 객진번뇌로 인해서 不淨해 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心이 항상 있다고 하였고, 고로 객진에 더럽힌바가 되어서 심이 不淨하다고 하였으며, 또 부처님께서 게으른 중생을 위해서 심이 본래 不淨하다는 것을 듣고, 문득 그 性을 고치지도 않고, 淨心을 발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本淨이라고 설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성실론〉에서는 '심성본정설(心性本淨說)'을 부정하였다.

부파불교에서 논의 되었던 심성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불성론에 대해서 매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대승불교시기에 이르러서 중요한 관심사는 심성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즉 부파불교에서 '심성론'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정립했다면, 다음으로 실천수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때 불성론은 이론과 실천의 양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즉 공성관에 입각한 반야공성 성공환유 등을 기본으로 하는 중관사상의 등장이고, 아뢰야식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유식무경의 관점인 유가사상의 등장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사상적 관점이 동시에 출현한 것은 아니고, 전후로 발생되었다. 공성관은 제법본질(空)의 입장에서 심성 및 제법현실을 규명했다면, 아뢰야식을 기본 사상으로 한 유가사상은 심성 및 제법현상을 현상(有)의 관점에서 분석 탐구해 본질에 이르는 과정이다. 다시 정리 하면, 중관파는 바로 여과 없이 제법현상의 본질을 드러냈다면 유가행파는 제법현상을 현상에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서 본질을 나타내는 수행법이다. 즉 비유를 들자면, 중관파는 현관(現觀)이라는 관법을 통해서 바로 불성을 드러내는 수행이라면, 유가행파는 요별식(了別識) 마나식(末那識) 아뢰야식 등의 단계적인 경계를 통해서 본질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동국대 강사〉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움츠리고 있지만 따사로운 봄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듯이 혼란스러운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평화롭던 일상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봉축행사가 윤사월로 미뤄졌습니다.
격려의 빛과 따뜻한 희망을 담아 현대불교신문사는 윤사월에 맞춰 봉축특집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따뜻하고 고마운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꽃 피는 세상' 봉축 표어처럼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의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꽃 피길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모두가 발원 드립니다.

❖ 지사지국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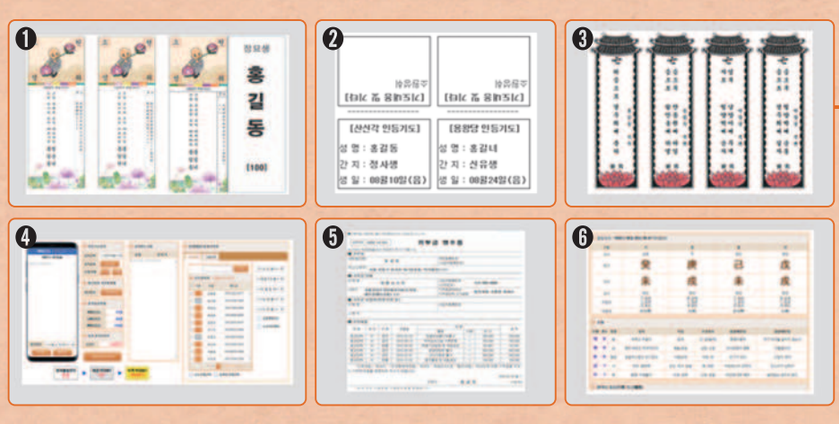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현대불교
Tel. 02)2004-8216 Fax. 02)737-0696 E-mail. jabi2018@naver.com

Gm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부처님 탄생 · 성도 · 열반 기리는 '까손 축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⑨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

5월 6일 방생 · 관불의식
보리수나무에 물 뿌리며
공덕 쌓고 마음을 다스려
보름날 불교축제만 5개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인 '까손보름축제'에서 미얀마 불자들이 보리수나무 뿌리에 물을 뿌리고 있다.



더띤줏보름날 진행된 빛의 축제.



까손보름축제의 관불의식.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와소축제서 공양을 올리고 있다.

올해 한국의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이다. 국가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쉬는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다. 어릴 적에는 부처님오신날은 부모님 손을 잡고 절에 맛있는 비빔밥을 먹고 부처님께 삼배하러 가는 즐거움이 있었다. 일년에 한 번 있는 부처님오신날 때 먹었던 비빔밥은 다른 때보다 더 맛있었다. 20대가 되어 불교학과에 입학하고 난 후 나에게 부처님오신날은 하나의 행사이자 축제가 되었다. 불교학과 학생들 중 몇 명만 뽑아 연희단을 꾸린다. 연희단에 뽑히면 연등회 행렬을 시작하기 전 신나는 노래에 맞춰 연희단 율동을 한다. 스무살 때 했던 연희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매년 선후배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었던 일 또한 잊을 수 없는 대학생 시절의 추억이 되었다.

미얀마로 유학을 가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은 어떨까?' 였다.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변함이 없을 정도로 강했다. 영국 사람들은 미얀마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절에 "미얀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불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또한 강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미얀마 사람들은 예전에 '주말'의 개념은 서양문화의 영향이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유학을 하면서 곁에서 지켜본 미얀마 사람들은 스님들의 법문에서 삶의 지혜를 찾고 공양을 통해 보시하며 부처님께서 설한 오계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은 '까손(Kason)보름축제' 이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불교국가와 같이 '보름'이 아주 중요한 날이다. '까손 보름 축제'를 제외하고 불교와 관련된 보름 축제가 4개나 더 있고 모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보름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탄생재일) 깨달으시고(성도재일) 열반하신 날(열반재일)이 모두 보름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름날에 수행을 하면 다른 날에 비해 더 특별하다고 믿는다.

이번 해에 까손 보름 축제는 5월 6일이다. 까손은 꾸손(Kusone)에서 왔다. 꾸(Ku)는 '물'이라는 의미이고 손(Sone)은 '붓다, 뿌리다' 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까손이 물을 붓는 날, 뿌리는 날이 되었다. 까손날은 부처님의 탄생 · 성도 · 열반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얀마에서는 까손날에 태어난 아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공덕이 가득한 인생을 산다고 믿는다. 이 날에는 미얀마 사람들은 절에 가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독송하며 명상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보시한다.

신심 가득한 '까손 보름축제'

또한 자신의 선업을 쌓기 위해 새와 물고기를 방생하며 불상에 관불의식을 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얀마에서는 나무에도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 불교를 대표하는 나무를 꼽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이다. 까손날이 되면 미얀마 사람들은 보리수 나무가 있는 사원으로 가서 보리수 나무 뿌리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한다. 양곤에서는 쉐다곤 파고다와 슐레 파고다로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보리수 나무에 물을 붓는 행사를 진행한다.

까손날에 보리수 나무에 물을 붓는 문화는 미얀마 바간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간 왕조시대의 왕들은 불심이 매우 깊어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과 같이 생각해서 까손날이 되면 보리수 나무 뿌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고 이 전통이 천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미얀마 부처님오신날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미얀마 사람들은 관불의식과 보리수 나무에 물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물로 깨끗이 닦으며 공덕을 쌓는 일로 생각한다.

까손날과 같이 미얀마에는 또 다른 불교와 관련된 보름 공휴일이 있다. 더바웅(Tabaung)보름날 · 와소(Waso)보름날 · 더띤줏(Thadingyut)보름날 · 더쟈웅몬(Tazaungmone)보름날이 있다. 더바웅 보름날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쉐다곤 파고다'와 관련이 있다. 마자뿌자(magja puja)라고 불리는 더바웅 보름날은 우깔라빠(Ukkalapa)라는 왕이 쉐다곤 파고다의 건축을 마친 후 그 안에 부처님 머리카락을 안치한 날이 더바웅 보름날이었다. 이 날은 각기 다른 28개의 불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고 빳타나(Patthana) 논서를 스님들이 24시간 읽는다. 그리고 스님들께 밥을 비롯한 반찬들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린다. 미얀마 사람들은 더바웅 보름날이 되면 어김없이 쉐다곤 파고다를 찾아 부처님에 대한 예를 갖춘다.

'와소 보름날'엔 하안거 입재

7월에는 와소 보름날이 있다. 이 날은 미얀마 스님들이 하안거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 날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사성제에 대한 설법을 한 날이기도 하다. 와소가 시작되면 미얀마 스님들은 더띤줏 보름날이 되기 전까지 약 3개월동안 절에서 나갈 수가 없다. 절에서 경전공부 및 수행을 정진해야 한다. 와소가 시작 되는 날 우바이 · 우바새들은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가사와 음식을 기부하는 행사를 한다. 또한 어린 남자아이들은 와소를 기점으로 신뿌 의식을 행하여 스님들과 함께 절에서 수행을 하며 자신들의 선업을 쌓는다.

와소 보름날의 시작한 하안거는 10월 더띤줏 보름날이 되야 끝난다. 이 날은 하안거 해제 날이면서 미얀마의 추석과도 같은 날이다. 더띤줏 보름날에는 가족 · 친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승과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선물을 사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날이다. 어른들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덕담을 해주며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가득하길 발원해준다. 그리고 이 보름날에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파고다 · 회사 · 관공서를 비롯한 대로변마다 촛불과 작은 등을 켜서 밝혀 놓는다. 하안거 해제 날이기도 한 이 날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이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밝힌다. 그래서 더띤줏 보름날을 빛의 축제라고도 부른다.

미얀마의 우기가 끝나는 11월에 더쟈웅몬 보름날이 있다. 더띤줏보름날과 비슷하게 빛의 축제를 하는 날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9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긴다. 양곤에 있는 차욱타지(Chaukhtatgyi) 파고다에 9,999개의 촛불을 더쟈웅몬 보름날에 킨다. 이 날 9,999개의 초를 키는 이유는 '수라마닉' 탑과 관련이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신들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수라마닉' 탑이 천국에 있다고 믿는데, 이 탑을 존경하고 모신다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킨다.

또한 매잘리푸라는 야채와 땅콩 · 식용유 · 소금 · 간장 · 고추를 넣고 매잘리푸 무침을 더쟈웅몬 보름날에 먹는다. 이 매잘리푸 무침을 먹으면 98가지의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들의 가사를 직접 만드는 대회도 개최한다. 우바이들이 참가를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스님들에게 보시할 가사를 만드는지 시합을 한다. 우바새들은 우바이들이 가사를 만들 때 미얀마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응원한다. 직접 만든 가사 이외에도 가사를 기부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카테인(Khatain) 행사라고 한다. 그리고 풍등을 날리며 나쁜 기운이 모두 소멸되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비는 날이다.

황금의 나라, 불교의 나라 답게 미얀마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보름과 관련된 공휴일이 5가지나 된다.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인 까손날은 약 1000년전 바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보리수 나무에 물을 붓는 행사가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다. 까손날을 비롯하여 약2~3달 간격으로 미얀마 사람들은 보름날 공휴일이 지정된 날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스님들께 가사와 공양물을 보시하며 초와 등불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의 무명을 밝힌다.

우리나라에 딱 한번 있는 부처님오신날 공휴일을 매년 손 꼽아 기다리던 나에게, 미얀마에서 유학하는 동안 불교와 관련된 보름 공휴일들은 나에게 큰 기쁨이자 행복이다. 4월 30일은 한국의 부처님오신날, 5월 6일은 미얀마의 부처님오신날을 통해 코로나19가 얼른 우리 곁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길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 할 것이다.

〈양곤대 박사과정〉



法은 자신 안에 있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⑱ 隨處作主 立處皆眞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불법 자체는 애써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할 땐 쉬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알 것이니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밖으로 향하여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였느니라. 그대들이 어디를 가나 주인이 되면 자기가 있는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다. 어떤 경계가 온다 해도 이것을 바꿔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묵은 습기와 오무간지옥의 죄업이 있어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될 것이니라."

임제는 어느 날 또 특유의 법문을 계속한다. 부처님 법은 애써 공들여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한다. 몸과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일로 정진해서 공부해야 하거늘 이 무슨 말인가. 깨달음 자체는 애써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다. 평소에 아무 일거리가 없는 텅텅 비고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구속이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법이 무엇인가 법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성게의 '증득한 지혜라야 알 바요, 그렇지 못하면 알 수 없다(證智所知非餘境)'는 말과 같다. 화장실에 드나들며 밥 먹고 옷 입는 것이 부처님 법이니 결국 법이 나 자신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가장 쉬운 말로 도인의 가풍(家風)을 나타낸 말에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잠잔다(渴卽飮水困卽睡)' 라고 하였다. 이는 본래 있는 지극히 생리적 현상으로 마음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다.

이 장에 와서 또 중요한 법구(法句)가 나온다.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라 그러면 그곳이 존재의 진실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 매우 매력 있는 말이다. 이것만 바로 알아 챙기면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큰 해탈의 바다가 된다 하였다.

중국 당나라 때 나찬(懶瓚) 스님이 있었다. 어느 산중에 있을 적의 일화가 하나 전해진다. 나찬외우(懶瓚煨芋)라고 선가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벽암록〉 34칙에 소개되어 있다. 덕종이 국사로 모실 스님을 찾고 있던 중 나찬 스님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 스님을 궁중으로 모셔오게 했다. 왕명을 받은 사신이 형산에 있던 나찬 스님을 찾아갔다.

그들이 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초라한 행색을 한 스님 한 분이 마당 가의 양지쪽에서 혼자 앉아 쇠똥불에 토란을 구워 먹고 있었다. 입가에 시커먼 검정이 묻어 있고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사신들은 이 스님이 국사로 모셔오라는 스님일 줄은 알지 못하고 명찬 스님을 모시러 왔노라 말하면서 스님을 뵙게 해 달라 하였다. 나찬 스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구운 토란을 먹던 스님이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자기가 나찬이라는 뜻이었다.

신하들은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 스님을 모시고 궁중으로 가야 하니 출발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들은 둥 만 둥 토란 먹는 데만 열중하였다. 천자의 명을 받드는 예를 갖추라는 데도 반응이 없었다. 입가가 시커멓고 코가 입술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본 신하가 입가를 좀 닦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내가 공부한 게 뭐가 있다고 속인들을 위하여 콧물까지 닦겠는가?"하고 일어설 줄을 몰랐다. 사신은 자기들이 스님을 위해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궁중으로 가는 채비를 하는 데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이 때 나찬이 한 말은 "조금 비켜 서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였다. 추운 날씨에 사신들이 햇빛을 막고 서 있었던 모양이다. 나찬은 끝내 국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덕종은 나찬을 더욱 흠모하였다 한다. '햇빛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 ?~BC324)가 한 말과 우연히 일치되었다 하여 후세 사람이 나찬을 동양의 디오게네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선은 경계를 의식하거나 끌려가지 않는 기백을 높이 산다. 이를 주체적 자아확립이라고 하고 임제도 수도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教 배운 후에 禪에 들어간다



세상 속 경전읽기

⑱ 수행의 이론과 실천법

〈소실육문(少室六門)〉 제3문 이종입(二種入)은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또는 대승입도사행관(大乘入道四行觀)이라고도 불린다. 짧지만 보리달마대사의 수행의 이론과 실천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논서이다.

'도(道)에 이르는 길' 곧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요약하면 이입[理入, 이론]과 행입[行入, 실천법]이 있다.

'이입(이론)'은 교[敎, 경론(經論)]를 빌어 모든 중생의 참성품[진성(眞性), 본체, 진여]이 동일한 하나임을 믿고, 망상을 걷어내고 참으로 돌아가며[사망귀진(捨妄歸眞)], 자타성범[自他聖凡, 나와 너 그리고 성인과 범부]이 하나인 부동지(不動地)에 머물되, 교(문자로 된 경론)마저 버리고 그 참뜻을 취하는 것[사교입선(捨敎入禪)]이다.

여기에서 사교입선(捨敎入禪)을 흔히 '교(경론)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고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은 자칫 교를 비하하고 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청화 스님께서는 사교입선을 '교를 배운 후에 선에 들어간다' 고 번역하셨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러면 몸은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통해, 생명의 유지를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필요 없는 물질은 걸러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해 낸다. 여기에서 물과 음식의 섭취, 신진대사, 소대변의 배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빠지면 생명유지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대소변으로 배출될 것이니 나는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버린다' 에는 반드시 '취해서 가진다' 라는 것이 선행한다. 가진 것은 버릴 수 있으나, 가지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없다.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를 생명유지 기전과 비교하여 곰곰이 살펴보면, 우선 교를 취하고 배워서 정신고양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교의 문자를 버리고 정신고양의 영양분을 이용해 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차피 버릴 문자이니, 나는 교를 취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대소변으로 버릴 것이니 나는 물과 음식을 취하지 않겠다' 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행입(실천법)은 '보원행(報冤行)', '수연행(隨緣行)', '무소구행(無所求行)', '칭법행(稱法行)' 의 4종으로 대별된다.

보원행이란 역경을 맞았을 때, 이는 과거생의 원증(怨憎)의 과보임을 알고, 원망심 없이 수도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수연행이란 좋은 일이 생기면 과거생에 지은 인연의 과보로 생긴 것이니 곧 인연 따라 스러질 것을 알아, 기쁨에 들뜨지 않는 것이다.

일체가 항상 변해 실체가 없으니, 없는 실체를 갈구(渴求)하고 잡으려하는 것이 고통인 줄 깨달아, '갈구함이 없이 평안한 것' 을 무소구행이라 한다.

칭법행이란 '모든 현상이 비어있고 본래성품이 맑음' 을 철저히 알아, 6바라밀(波羅蜜)을 닦되, 닦는다는 모습을 내지 않는 것이다.

행입의 4행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연기(緣起)이고, 연기즉공[緣起卽空, 연기이므로 공(空)]의 공지(空智)에 투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붓다께서, "연기를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연기를 발견한 것이다"고 하셨다. 사제법(四諦法)으로 집인고과(集因苦果)의 유전연기(流轉緣起)와 도인멸과(道因滅果)의 환멸연기(還滅緣起)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신 붓다께 사무치게 감사드린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⑭ 닦음의 길 4

삼학, 수행인가 자성인가?
〈三學〉 〈自性〉

지난해 고불총림(古佛叢林)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랫동안 총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총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총림이란 본래 승려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을 수행하는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이나 승가대학, 계율을 공부하는 율원(律院) 등을 갖춘 사찰을 의미한다. 〈총림법〉에는 선원과 강원, 율원 외에도 염불원(念佛院)을 갖추고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이라고 규정되어있다. 현재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큰 사찰들이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총림의 구성은 불교의 종합적 수행체계인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학(율원)은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정학(선원)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이며, 혜학(강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다. 계율과 선정, 지혜를 단계적으로 닦는 삼학은 불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수행법이다.

삼학의 단계적인 공부법은 '계의 그릇이 깨끗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 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맑은 물을 담는다고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선정과 지혜 공부의 바탕이 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릇에 담긴 물이 출렁임이 없어야 그 안의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선정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비춰서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근본불교의 실천체계인 팔정도(八正道) 또한 삼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계학에 속하는 실천으로 말이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정어(正語)와 정업(正業), 정명(正命)이 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을 강조하는 정정진(正精進)과 정념(正念), 정정(正定) 공부는 정학에 포함되며, 바르게 보고 사유하는 정견(正見)과 정사(正思)는 혜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삼학은 다양한 과자들이 들어있는 종합선물세트에 비유할 수 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선불교에 이르게 되면 삼학이 새롭게 해석된다. 계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정 공부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지혜를 증진시키는 단계적인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건너온 선(禪)을 중국적인 색채로 바꿔놓은 6조 혜능(慧能)은 삼학을 우리의 본래 마음인 자성(自性)으로 압축하여 해석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 본래 그릇됨이 없는 것(心地無非)이 자성계(自性戒)이며, 산란함이 없는 것(心地無亂)이 자성정(自性定)이라는 것이다. 자성혜(自性慧) 또한 본래 마음에 어리석음(心地無痴)이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삼학(自性三學)이라 하는데, 그릇됨과 산란함, 어리석음을 대치하는 수상삼학(隨相三學)과 대비되는 말이다. 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견성(見性)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 본래 그릇됨과 산란함, 어리석음이 없다는 실상을 깨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성삼학과 수상삼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자성삼학을,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상삼학을 닦는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을 채택한 셈이다. 선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자성삼학은 즉각적인 깨침을 강조하는 혜능의 돈문(頓門)의 전통이며, 수상삼학은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닦음을 중시하는 신수(神秀)의 점문(漸門)에 해당된다.

삼학을 종합적 수행체계로 인식한 근본불교와 이를 자성(自性)으로 압축한 선불교의 해석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양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대와 문화,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수행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근기가 뛰어나지 않아서 계율을 지키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은 아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명상은 만병 통치약 아니다

명상書 톺아보기

김정호의 〈MPPT 워크북〉

〈3〉 마음수행법



마음기술의 개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MPPT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마음기술이다. 간단하게 특징을 정리하면 명상은 마음을 쉬는 기술이고, 마음챙김은 마음을 보는 기술이며, 긍정심리는 마음을 쓰는 기술이다. 조금 더 상세히 기술하면 명상은 욕구와 생각을 쉴 줄 아는 마음기술이고, 마음챙김은 내 마음 또는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마음기술이며, 긍정심리는 욕구, 생각,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로 구성된 마음기술이다.

욕구와 생각을 쉰다는 것은 욕구와 생각을 멈춘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명상이 좋다고 욕구와 생각을 쉬기만 해서는 안된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챙김도 단지 마음을 보기만 해서도 안된다. 욕구와 생각을 쉬는 것도 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욕구와 생각을 잘 쓰기 위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욕구와 생각을 잘쓰는데 명상과 마음챙김이 도움이 되지만 욕구와 생각을 잘 사용하는 긍정심리의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 명상이나 마음챙김에 대한 긍정적 선호가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자칫 명상과 마음챙김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전통적으로 마음수행법에 해당한다. 최근에 명상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명상이라는 용어로 모든 수행법을 대표하는 총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음수행법의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마음수행법의 과학적 연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마음수행법의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명상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명상이라는 용어의 오남용이 많아진 것 같다. 호흡명상, 행위명상, 몸명상, 소리명상, 점명상 등 비사변적인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생각을 비우는 전형적인 명상 외에 감사명상 자비명상 죽음명상 등 방법상 동일한 유형으로 묶기 어려운 수행방법들이 명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비명상, 감사명상까지는 그래도 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부자가 되는 명상' '성공을 위한 명상' '다이어트 명상'이라는 용어에 접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명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먹고싶은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주문을 외는 것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부를 이루는 장면을 그리는 것도 명상인가? 명상이라면 혹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를 반복하는 만트라 명상이나 '내가 안전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등의 자비문구를 반복하는 자비명상과는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의 명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것이 스트레스 관리로 좋을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명상이라면 삶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과 명상은 어떻게 다른가? 아예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명상으로 넣는 것이 좋을까?

명상이 가져오는 효과의 기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명상의 유형을 내적 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명상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또 명상이라는 용어의 오남용이 커지면서 과연 무엇이 명상인지 좀 더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게 됐다.

동양에는 마음수양을 위한 다양한 마음수행법이 있었지만 근대 이전까지는 명상이라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명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명상'은 근대 영어의 번역어로 일본에서 만든 용어다. 서구에서의 'meditation'은 라틴어 'meditari'에서 왔고, 생각하다, 묵상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meditation은 나중에 동양의 다양한 마음수양의 수행법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밖에서 보기에 말없이 가만히 눈감고 있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동일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다양한 마음수행법이 영미권에서 meditation으로 지칭되었고 meditation이 다시 일본에서 명상으로 번역되었다. 사정이

마음 수행의 3가지 정의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마음챙김으로 '관' 익히고
긍정심리의 적극적용 필요

이렇다 보니 명상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내용상 서로 다른 마음수행법들이 동일하게 명상이라고 불리며 연구되는 일이 많다.

마음수행법의 정확한 정의

마음챙김의 정의 자체도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마음수행법의 효과와 기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나의 용어로 담기에는 수행방법들이 서로 너무 다르다. 다양한 수행방법을 정리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적 전통, 특히 종교적 전통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수행법이 발달하고 행해져 왔다. 수행법의 종류는 다양하고 목적도 조금씩 다르다.

자신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행에는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 구체적으로는 욕구, 생각, 감정 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력은 일반적으로 자기조절 혹은 자기관리의 능력으로 불리는데 마음조절 혹은 마음관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MPPT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마음기술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는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들은 모두 마음을 다루는 능력을 양성하는 방법들로서 마음수행법이라는 용어로 묶을 수 있다. 앞에서 MPPT에 대해서는 마음기술을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각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을 쓰는 기술을 뜻한다고 했다. 또한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는 각각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을 쓰는 기술을 양성하는 방법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수행법은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음지식과 마음기술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을 꾸준히 연마하면 나와 세계를 보는 분, 즉 관(觀)이 바뀐다. 〈반야심경〉의 도입부에 관자재보살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마음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관자재보살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자재하게, 즉 관을 조금 더 자재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와 세계를 보는 관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마음기술이 늘게 된다. 나와 세계를 습관적으로 제한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마음사회이론으로 보면 관을 자재롭게 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필요한 나를 내 마음의 무대로 불러올려 적절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음챙김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을 훈련한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초연하게 바라보는 마음챙김은 나와 동일시 하는 마음수행이다. 마음챙김을 꾸준히 하면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반대로 마음사회이론을 이해하면 마음챙김에 도움이 된다. 마음사회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수치스럽거나 취약하거나 부정적인 나들에 대해서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됨으로써 마음사회의 여러 나들을 객관적으로 초연하게 볼 수 있는 마음챙김을 자각하게 해줌으로서 기여한다.

긍정심리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건강하게 사용한다. 다양한 건강한 관을 마음대로 쓰는 훈련이다. 건강한 나를 자꾸 기르는 마음수행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웰빙을 만들어 내는 웰빙 행동을 하게 된다. 불건강한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건강한 생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켜준다. 긍정심리는 이이제이, 이열치열의 수행법이다.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2호 | 15 | 전면광고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 조 불 교 재 활 용 센 타
010-9177-784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 • •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도심사찰)
• • •
010-5736-1835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포항, 동호사)
• • •
010-3376-6601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침향 염주입니다. 침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대방광불화엄경의 감춰진 비밀
초발심자가 문뜩 정각을 이루는 법!!
1.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2.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믿음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다.
4. 선견약이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독한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준다.
5.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문의 : 010-7131-708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2호 | 16 | 전면광고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괴로움이 몸에 얽혀 재앙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천신책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내토굴
◎ 대지 : 19평
◎ 지상 3층건물
◎ 각층 : 19평
◎ 매가 : 1억7천5백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포천
- 대지 952평, 법당 목조단청 30평, 산신각목조단청 10평, 요사채60평, 주방30평, 주차장300평
- 위치및 접근성과 조망권좋음
- 가액 : 25억

010-5129-5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암자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4-1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원매자 현장방문후 조정가)
- 문중땅 도지세1년 20만원.

010-5714-7872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 : 약 26평
- 종무소 :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조정가능)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대승사(종교부지 1700평) : 백병길 171 ●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임대에서 매수전환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조건 및 금액절충)

010-4225-0012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법당, 지장전, 요사채, 별채, 산신각, 종무소외 넓은마당, 사찰외 넉넉한 주차장,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 스님 노환으로 매각
- 가액 : 6억 5천만원

010-5140-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 총 607평(종교부지 포함)
- 법당(25평), 요사채(30평) 조립식
- 가액 : 1억3천5백 (시설일체 드립니다.)

010-9504-7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3층건물 3층 약 35평, 주차장, 상담실, 법당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02-549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려 내려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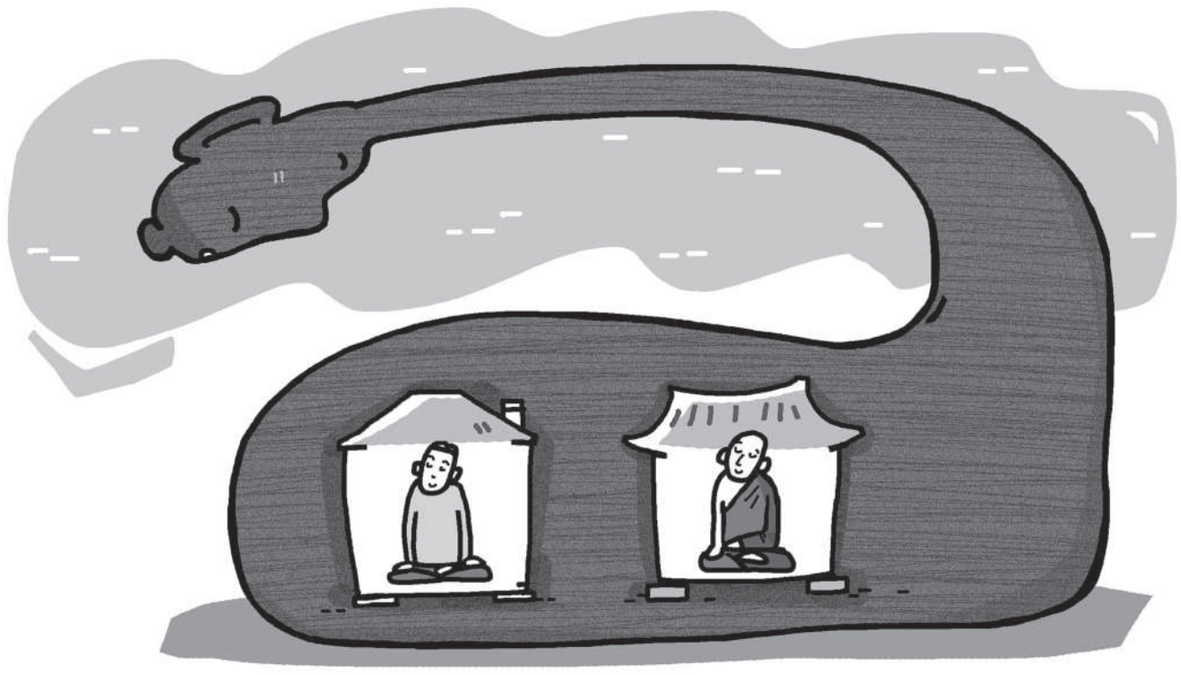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과 같이 토론 겸 생활면에서 불교가 어떤 거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또 진실한 불법을 알 수 있을까 하여 항상 이렇게 같이 한마음으로서, 동체로서 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지고, 도무지 이익이 모두 각자에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이다 하니까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부처님 법인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생활하시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생활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섯 식구가 살든 열 식구가 살든 또 아파트에서 살든 아파트 아닌 데서 살든, 공기라는 이 자체, 습도력이라든가 바람, 온도, 모두 이런 문제로 한데 합쳐진 그 공기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살기도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기도 하는가 하면 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한 가정 가정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애들이 병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 한 점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있으니, 보배로운 한 점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일체 만법의 응용은 그 한 보배의 한 지혜로운 무기로써 모든 것이 해결이 나는 거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우글우글하거든. 생명체들이 우글우글하죠. 또는 습도나 온도, 바람, 바람에 의해서도 어떠한 나쁜 세균의 생명이 나에게 접근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균의 생명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계 이런 문제, 즉 말하자면 인간이 청골이라면 청골의 영계에 유전이 되는 수도 있고, 백골이라면 백골에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랍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하면 경이나 읽어야 부처님 법인 줄 알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거, "생활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며, 우리가 그 만법을 응용하는데 어디서 이 만법이 다 나오는가? 이 한 점을 발견하라."


그림 · 최주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도란 말입니다. 도라고만 할 게 아니라 도심(道心), 그 심을 밝혀라 이겁니다.

내 방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 스님이 "아이고, 습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 물 나오는 거 있지?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다 필요 없다." 이럽니다.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남이 더 잘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습도를 맞추는 것도 그것이 나를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맞춰야지 그게 맞춰 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걸 해놔 가지고 애들이 병이 나는 수도 많고 어른이 목이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물질로만 돌아가지 마시고 한생각에 한 점의 그 근원을 생각하면서, 그 근원이 바로 만법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된다는 거, 그것을 아시면서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넓히세요.

그 지혜는 바로 여러분이 만법을 사용하는 데에 다양하게, 찰나찰나에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공기의 습도,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이 방에 앉아 있는 우리 인간의 수효보다 공기가 더 중력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공기가, 모든 공기의 그 습도력과 온도력이 인간보다도 더 중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쓸 줄 모르면, 그 습도력이나 모든 것이 이 인간보다도 더 높아진다면 거기에서 이 피가 순환이…, 말하자면 습도가 말라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내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전념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라. '아, 이건 좀 쌀쌀하구나.' 이렇다면 여기다 탁 저거 하고 이 행동으로도 이것을 잘 이렇게 맞춰 놓으면 아주…. 무슨 물질을 맞춰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자가발전소만 되는 게 아니라 원자력도 되고, 일체 만법의 근원의 보배도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사는 데 응용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천차만별로 무한의 보배가 된다는 얘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는 불교를 믿는다 하면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법인 줄 알거든, 모두. 이거 참, 사실 얼마만큼 고쳐야 할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배우는 사람은 어떠해서 그렇게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나. 모두 학식이 높아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높아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을 너무 믿어서 그렇게 가르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부모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아끼는 그 마음, 아주 그걸 가져야지, 겉으로만 얼렁얼렁하고서 속으로는 모시기 싫고 모든 게 그렇다면 부모 모시나 마나야. 나만 알고 말이야, 응? 그러면 물질을 아무리 갖다 놔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려 내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당신네들을 고생 안 시키고 또 당신네들을 잘 가르치고 부자를 만들어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부모는 잘 먹고 자식은 잘 못 먹였습니까? 부모는 잘살면서 자식을 못 입히고 고생을 시켰습니까? 자기가 덜 먹어 가면서라도 자식은 먹이려고 했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했었고, 또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을 고생 안 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부모나 늙은 부모나, 아마 예전의 부모나 지금 부모나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위대해서 부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그 한 점의 마음이 모든 것에 겸손하고, 얕은 걸 봐도 불쌍한 걸 봐도 높은 걸 봐도,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고 나가라! 또 은사나 이런 걸 봐도 거기에 말려서도 안 되고 착을 둬서도 아니 되느니라. 이런 것은 어떠한 점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극한 한 점에, 그 빈 한 점에, 그릇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그 한 점에다가 만약에 그 모두를, 내가 사랑한 그 마음을 가볍게 내 한마음에다 둔다면 그 한마음에 내 몸도 그 몸이요, 내 마음도 그 마음이요, 내가 못 먹으면 그분도 못 먹을 것이요, 내가 잘 먹으면 그분도 잘 먹을 것이요, 일체가 나로 하여금 모두가….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을 떡 하나를 가지고 먹이고도 그 떡 하나는 되남았느니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그냥 "부처님, 부처님" 하고선 야단들을 하니 자기가 부처가 돼 봐야 부처님의 그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래 이런 말이 있죠. 너도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것을 속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해 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한번 넓혀서, 부처님의 불도로서 한번 귀합을 시켜 봐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 마음이나 그 마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49년 설법하면서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는 무루의 무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마다하지 않고 하신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신 길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배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구자입니다. 그분이 안 계실 때도 이 진리는 있었지마는 그분이 처음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밑거름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뿌리 없는 기둥이 돼 버리고, 음지 양지 없는 한나무가 돼 버렸습니다. '나무' 하면 나무를 나무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이 한 점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배가 있다

☞ 17면에서 계속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비할 수가 없어서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한 발을 디뎠다 하더라도 한 발 디딘 사이 없이 그렇게 찰나찰나 나투면서 소소영영하게 여러분과 바로 둘이 아니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생활면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어야 하나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나 내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써….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픈 것도 역시 이게 공부의 과정이구나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두되 바깥으로 두지 않았다 이겁니다. '음, 네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는 거고, 네가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는 거고, 네가 있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너로 인해서 이 만법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니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놔 버린 것 밖에는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수없이, 나를 세울 수 없이 찰나찰나로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변질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마당에 영원토록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뜻은, 여러분이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산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도 없다는 그 뜻을, 내가 수차 얘기합니다마는 모습을 바꿔서 옮겨서, 바로 요렇게 한 발 한 발 옮겨 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더러우면 만날 바꿔 입고 더러우면 바꿔 입고 이렇게 합디다. 이거는 생사에 안 걸립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옷만 바꿔 입었다 뿐이지 그 옷이 죽었습니까? (중략)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다섯을 기르는 데에 병원비가 한 달이면 보통 7만 원, 8만 원 나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10만 원도 모자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하나도 안 나간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정에 이익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벌고 안에서는 마음을 졸이고, 차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회사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피땀을 흘리면서 번 땀방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또. 그 종이짝이 문제가 아니야. 기름이 문제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동력 있게 살아나가는 것은 만법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이 보배로운 내 한마음에 달렸다.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 점을 비유하는데, 그 한 점마저도 찰나찰나 나투니 한 점이라고 말할 것조차도 없구나. 다만 있다면 목마를 때에 마시는 그 물 맛이 만 가지 맛이 나더라는 얘깁니다.

우리 이 불법이 얼마나 좋은지, 기독교나 천주교나 알라신이나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사람이기에 바로 불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움죽거리는 것이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이 따로 있는 줄 아시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따로 붙입니다.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지붕 밑의 한 항아리 속에서, 지구 벌레가. 그것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구 벌레로서 영원토록 그 종 문서를 태워 버리지 못한 채 얼마만큼 화해서 정말 걸리고 걸리면서 윤회로 끄달릴 것입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업이 있느니 인과가 있느니, 또는 윤회에 말리느니 유전성이 있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생각에 모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회적으로 다가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업보가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하고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처음부터 어른이 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배워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선배에 따라서, 사람 사는 데에 따라서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생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방향을 잘, 나침반을 놔서 내 이 몸뚱이의 중생들이 수억이 있으니 오직 한 배를 타고서 한 대표인으로서 바로 선장이 돼 가지고 내 중생을 거둘 줄 알아야 남의 중생도 거둘 줄 알고, 남의 중생에게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도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한데 합쳐 줬기 때문에 대표인 사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 중생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깁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이 일체 만물만생이 돌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식물도 자기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모든 것이 따라 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따라 주기에 우리가 한생각을 할 때에 우주와 더불어 일체 만물만생이 한생각으로 그냥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야 한 손을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한 주장자를 들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법상을 치시며) 한 주장자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모든 게 개화가 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에 따라서 그 불씨를 탁 들고선 앞장서 줘야 할 스님네들이 우리는 필요하고, 또 스님네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그 앞장서는 스님네들을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야 뒤따르지 모르면 뒤따를 수도 없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갈 수는 없다. 왜? 엊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쓰라림을 당했던가. 얼마나 걸리면서 끄달리면서 밟히면서 피를 흘렸던가. 그렇다면 이 모든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대로, 이렇게 형성을 시킨 것도, 이 집을 만든 것도, 내 몸이라는 이 법당을 만든 것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그 생명들이 한데 모여 줬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럴 때, 이 모든 인과로써 내가 이렇게 됐다면 바로 이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이라면 너 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서, 몸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한 도량에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듯, 자기 간이면 간, 소장, 대장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데 전부 이 대표인 선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몸을 그렇게 아프게, 괴롭게 하면서 몸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표인이 못 되고, 선장이 못 되고, 나침반이 틀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소임 맡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얼마나 갈 바를 모르고 고아가 돼서 헤매는가. 그와 똑같은 우리 이 마음 안의 중생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에 기대를 걸고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하고 나갔을 때 바로 내 이 소임이, 허파가 잘못됐다면 허파에서 바로 내 한생각에 온 누리에, 한 몸이 온 누리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온 누리의 발끝, 손끝마다 대뇌를 통해서 전부 무전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 돼 가지고선 거기를 개척을 해 나갑니다, 잘못됐다면. 그러는데 어찌 병들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아픔을 느끼고 남까지 괴롭게 하면서 옷을 벗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에도 수억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내 한생각, 즉 말하자면 선장에 달렸다는 점,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깐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남매를 데리고 한 어머니가 지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한양에 보내서 공부를,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보내서 공부를 다 시켰단 말입니다. 그랬으나 부모의 마음같이 어디 자식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 멋대로 해 나가고….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시켜 놨더니 야, 이거는 그냥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통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차압이 들어와서 집도 다 그냥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삼촌네에 모셔다 놓았는데 삼촌과 삼촌댁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으나 병이 들어서 죽고 나니까 조카들이 누가 좋다고 합니까.

남매를 길러서 딸은 시집을 보냈는데 가난한 데로 보냈어. 마음들은 착하나 가난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가깝지도 않고 먼 데로 보냈으니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 때문에 다 넘어갔다고 딸한테다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라. 딸의 근심이 또 병이 될까봐 어머니는 하지 못하는 말이 많아. 예전 얘깁니다마는 지금으로 돌려서도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이 절간 저 절간으로 다니면서 공양주를 해 가면서, 스님네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인제는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어느 절간 토굴 같은 데, 못 쓰는 데를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살아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옷을 벗고도 그 마음이, 즉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간절한,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습이 죽어도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인도를 해서 잘돼 나가다가 결국은 인도한다는 게 절로 인도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은 아마 억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입산을 해 가지고서…. (녹음 안됨)

어느 날 은사 스님한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네 마음이요, 네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며 그 한마음 속에, 그 성품 안에 다 들어 있으니 바로 너를 움죽거리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 성품이 바로 너이니라. 참다운 너를 발견하라. 타의에서, 어머니의 그 습에 자꾸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몰락 놔서 죽였을 때, 방하착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영원한 그 생명수의 맛을 볼 수 있으리라. 너의 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너는 꼭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하고선 책도 보지 못하게 했더랍니다. "너는 책도 보지 말라."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 분이 서산 대사라는 분이었더랍니다.

그랬는데 사명 대사하고 계실 당시에 솔 이파리하고 저 뭡니까? 날콩 찧은 거하고 짜서 그 물을 똑같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사명 대사는 설사를 하고 서산 대사는 설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사명 대사더러 하는 소리가 "너는 네 한 점의 마음에, 그 빈 마음에다가 그 빈 식구들을 가볍게 넣고 다니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하면서 어째서 날콩과 익은 콩이 둘로 나누어지느냐. 그래서 설사를 하느냐!" 하고선 몽둥이로 쳤더랍니다. 사명 대사는 알면서도 그 지혜를 넓히지 못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 지혜가 크게 넓어져서 보배가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옛날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 한 점의 마음이, 지혜가 바로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수많은 지금 현재 살림살이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웃에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인과응보가 많아서 저렇게 고생을 해.'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한생각으로써 '아, 그거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그 한 점에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사이에.' 그러니 모든 것은 그 마음을, 한생각을 내 주는 반면에 에너지 같은 무전통신이 바로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사람들도 다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이치가 있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전달을 하십시오. 말로 전달을 하면 그게 한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잘 쓰고 남한테 이익을 주게 하고, 마음을 잘 씀으로써 말도 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나간다면 말씀이 될 것이고 말을 잘못하고 남을 해롭게 한다면 바로 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며
우리가 그 만법을 응용하는데 어디서 이 만법이 나오는가.
이 한 점을 발견하라.

※위 법문은 1986년 5월 8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죽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죽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몸도 생명도 허약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삶의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끝없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다 시간이 다하면 후회와 두려움만 남아요. 잘 죽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이에요.

죽을 운명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면 시간이 소중하고 한순간도 너무나 소중해요. 돈이 많지 않으면 돈을 아껴 쓰는 것과 같아요.

죽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삶의 가장 훌륭한 인도자이며 스승입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사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명상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마음공부해 후회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기다려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⑨ 아, 티베트 라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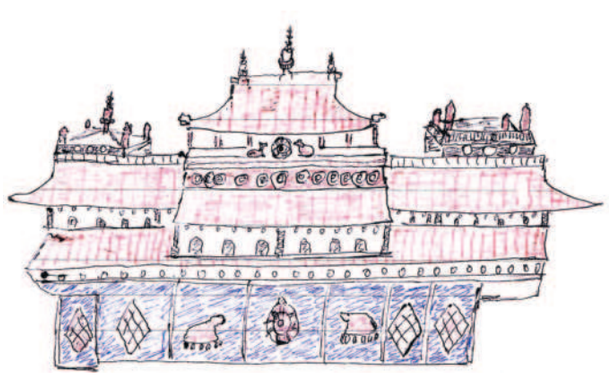
'옴 마니 반메 훔'… 진리의 연꽃을 찾아서

'옴 마니 반메 훔' 이 진언은 티베트를 순례하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들려온다. 그대 가슴 속에 연꽃 같은 진리의 보석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2014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혜총 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성지순례' 를 가졌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실의에 젖은 때라 조금은 조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를 진행한 것은 에메랄드빛 암드록쵸 호수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그들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이 있는 쓰촨성의 충칭(重慶)이란 도시로 향했다. 이곳에는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으로 상해에서 쫓겨나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은 곳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대장정(大長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순국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콩영화 '중경삼림(重慶森林)' 이 떠오르는 이 도시는 중국의 삼대화로(三大火爐)로 일컬어지는 무더운 폭염과 가파른 비탈 골목길로 유명하다. 또한 장강삼협(長江三峽)을 비롯한 삼국지의 무대, 그리고 동정호와 악양루 등의 절경과 역대 시문을 감상할 수 있는 장강 유람선의 기점으로도 유명하다.

다음날 아침, 충칭에서 라싸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갔는데 우리 비행기가 보이질 않았다. 아침 9시 30분 출발하는 시각을 잘못 알아서 이미 떠나 버린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황당하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이에 여행사 직원을 닥달해 1시간 간격으로 두 대에 나누어 타고 라싸로 향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티베트 라싸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고 도리어 새옹지마라 생각한다.



티베트 라싸의 조캉사원 전경.



조캉사원의 '조오 석가모니 불상' 모습.

충칭서 김구 선생 등 추모해
비행기 시간 오류 '우여곡절'
라싸 도착해 조캉사원서 입재
고산병에도 순례는 계속된다

비행기 창문으로 새하얀 히말라야 설산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자 이내 행복한 마음이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拉薩)의 궁가공항에 도착했다. 해발 3700m의 고원에 위치한 공항에 내리자마자 산소 부족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다. 아니 주변 풍광이 마치 화성이라도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너무나 황량하고 신비로운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티베트에 첫 발자국을 내딛은 것이다.

알룽창포 강을 따라 그림 같은 풍경과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푸른 하늘과 더불어 정겹고 아름답기만 하다. 그러나 해발고도가 갑자기 높아진 까닭에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진다. 몸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싸 시내로 들어가 순례를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티베트 불교 최고의 성지인 조캉사원에서 봉행했다. 지도법사 혜총 스님은 입재사에서 "순례를 통해 신심과 원력을 증장시키자"고 당부했다.

조캉사원(大昭寺)은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33대 쏭짼감뽀왕이 641년 당태종의 조카딸인 문성공주를 아내로 맞아 그녀가 봉안해 온 12살 무렵의 '조오 석가모니 불상' 을 모시기 위해 지은 절로 티베트를 상징하는 성지이다.

조캉사원은 라싸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오랜 세월 티베트인의 영적인 중심지이자 가장 성스러운 성지로 여겨져 왔다. 지금도 수많은 티베트인들이 오체투지로 순례를 올 적에 조캉사원이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된다. 사원 앞에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현지인들의 오체투지가 이어지는 모습은 조캉사원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상징이 되었다. 조캉사원 주위 바코르를 도는 코라 순례가 행해지고 사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라싸 시가지와 멀리 포탈라궁은 그 자체로 신비하고 장엄하며 아름답기 그지없다.

조캉사원 주위에는 티베트 불경과 타르쵸나 룽다를 파는 작은 상점이 있는데, 주인 노보살은 필자의 티베트 어머님 같은 분이시다. 6대 달라이라마가 연모했던 양치기 소녀의 이름을 딴 '마지아미(瑪古阿米)' 카페와 라싸인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인민차관(人民茶館)' 도 잘 있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숙소인 호텔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고는 저녁을 먹었다. 벌써부터 고산병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속출하고 산소통을 끼고 살거나, 링겔을 맞는 사람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해발 3700여 m에서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해발 4,500m에서는 어찌될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도 대중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복덕을 믿어 볼 수 밖에 없다.

문득 은사이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가사와 옷가지를 들고 쵸모랑마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갔다가 그 아래 팅그리라는 마을 언덕에서 소지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만난 티베트 딸내미인 케샹의 눈물 흘리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며 애틋한 마음이 일어난다.

다음날 아침 지도법사 혜총 스님을 찾아가 아침 공양을 함께할 것을 청했다. 조금 후에 방문이 열리고 스님이 나왔는데, 마치 우주인이 걸어 나오는 줄 알았다. 자그마한 체구에 얼굴이 고산증세로 부어서 둥그렇게 변했다. 누가 봐도 우주인처럼 보이는지라 웃음이 났다.

밤새 고산증세로 인해 산소통 신세를 지고 아침에 목욕까지 하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눈동자와 자비하신 미소로 대중과 함께 하시는 자비덕화에 절로 찬탄과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지금 이곳 티베트 불교의 심장인 라싸에 와 있다. 저 멀리 보타낙가산의 장엄한 포탈라궁과 관세음보살의 가이없는 미소가 우리와 함께한다. "옴 마니 파드메 훔!" 모두의 가슴에 진리의 보석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빌어본다.

〈조계종 교육부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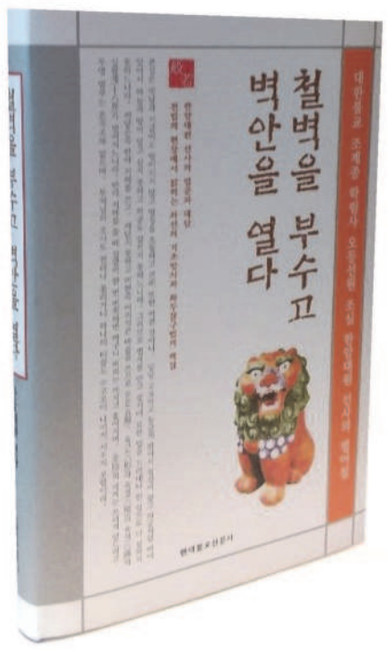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룡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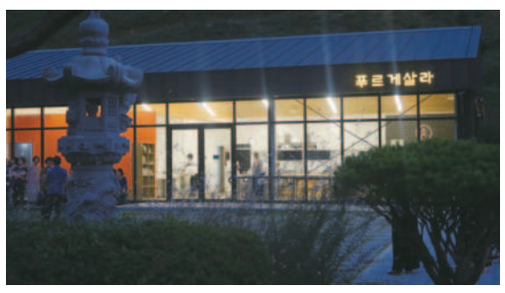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

푸르게살라

모든 어려움이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 화하길 발원합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는 2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영업을 쉬고 있지만
4월 말에는 다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주봉사단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번지



| 공모주제 - 자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잘 찍어서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진
- 사찰, 경내, 꽃, 하늘, 도반, 순례, 포행, 인물, 동물등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싶은 사진 또는, 스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범하고도 훈훈한 감동 있는 사진 등

| 출품방법
- BTN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출품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Mb 이상 10Mb 이하의 JPG파일
- 1인 10점까지 가능(출품비 없음)

※ 1인당 응모사진이 10장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수가 빠른 순대로 10장까지만 정식 접수됩니다. 이후는 응모작에서 제외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 6월 30일 / 심사발표 : 7월 말 BTN 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모대상
- 국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만(외국인 스님 포함) 응모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시 상

BTN사장특별상 (1명)	성지순례 상품권(130만원 상당)
대상 (1명)	상금 300,000원
금상 (3명)	상금 200,000원
은상 (4명)	상금 150,000원
동상 (5명)	상금 100,000원
가작 (10명)	상금 50,000원
입선 (10명)	20,000원(기프티콘)

| 문 의
-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검색, 친구추가 후 문의
- 또는 btnucc@btn.co.kr로 문의

[NOTICE]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 사진이여야 하며,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합니다.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결격사유 시 수상취소와 지급된 상금은 반환/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순위가 높은 분야만 시상하며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수상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분쟁 있는 경우.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